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 여든 세상 속에서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이 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2월 6일 (토) 제 1812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코로나19은 절망을 그러나 성경은 희망을!

CT, 팬데믹 고난에서 미국인들 성경읽기로 희망 재확인 연구 결과 보도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 많은 미국인들이 용기를 얻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온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선한 이유로 그렇게 한다. 세계적 대유행병과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는 대통령 선거, 사회 불안 속에서 미국성서공회(ABS)는 하버드 대학교의 인류번영프로그램(Human

Flourishing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성경읽기와 희망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COVID-19 Hurts, But the Bible Brings Hope: New study shows Scripture reading correlates with Harvard measures of human flourishing).



자신에 대해 얼마나 희망적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은 불규칙하게 읽는 사람들보다 33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이 같은 결과는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 별개의 두 조사에서 나왔다. 이 연구는 또 사람들이 성경을 자주 읽을수록 더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1점부터 가장 희망적인 100점 만점까지 점수를 매긴 이 평가에서, 1년에 3-4번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한 미국인들은 42점을, 매달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9점을, 매주는 66점을, 그리고 매주 여러 번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5점을 기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간 더 희망적이다. 그러나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읽는 사람들보다 희망 점수에서 약 5점이 낮다.

교회 출석이나 소그룹 참여 같은 다른 형식의 제자의 삶과 더불어 성경읽기가 사람들의 행복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일러 밴더빌레, 하버드 대학교 인류번영프로그램 공중보건교실 디렉터는 말했

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감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특히 그렇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이렇게 밝혀진 결과는 종교에 참여하는 것과 인류번영 사이의 영향 관계에 관한 다른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밴더빌레는 말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자살을 덜 하고, 삶의 목적이 더 뚜렷하다.

그런데 두 시기에 걸친 이 연구에서 독특한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하기 전과 후에 사람들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첫 조사는 1월에,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고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에서 사망자가 12만5,000명을 넘었다고 집계한 6월에 각각 실시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밝혀내는 조사는 원래 계획에 없었다고 존 플레이크 ABS 사역정보 디렉터는 말했다. 연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나쁜 점과 함께 그들에게 기회도 가져다줬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20년 1월, 플레이크와 그의 ABS 동료들은 10차 연례 '성경연구' 현황에 넣을 문항수를 확장하기로 했다. 하버드에서 개발한 인류번영 척도를 알고 있던 그들은 안전, 행복, 정신건강에 관한 문항을 성경 읽음에 관한 연구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들이 앞서 했던 것처럼, 그 정보를 분석해 나갔다.

결과는 교회가 사람들의 웰빙과 성경읽기에 유익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이다. 플레이크 디렉터는 "성경읽기를 늘리려면 교회를 통한 관계맺음을 늘려야 한다. 관계적 교회참여가 증가하면 성경읽기도 늘어나지만, 관계적 교회참여가 감소하면 성경읽기도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한 사람들의 관계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미국인들이 좀 더 성경을 읽었다. 코로나19로 가족이나 이웃의 사망을 경험한 이들의 성경읽기가 증가했다. 그러한 영향을 입지 않은 개인들의 성경읽기 추세에는 변화가 없었다.

일상생활에서 영성은 선택 사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중에 희망을 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미국 성인 10명 중 8명은 성경을 좀 더 읽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한 두려움을 겪지 않은 이들의 성경읽기는 감소했거나 그대로였다.

(3면으로 계속)



트럼프는 가도 법원은 보수 절대 우위

NYTimes, 연방대법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비대면 처방금지판결 보도

미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됐던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달 12일 내렸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임명 이후 나온 첫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에 관한 판결로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 구도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upreme Court Revives Abortion-Pill Restriction: In their first abortion case since Justice Amy Coney Barrett joined the court, the justices reinstated a requirement that women seeking medication abortions pick up a pill in person).

바이든행정부 행정명령 추진 난항 예상

성소수자, 기후변화, 총기, 의료보장 등

미국에서는 임신 초기에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받기 위해선 미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의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 산부인과대학 등을 대표해 단순히 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미 FDA를 고소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시

어도르 주판사는 지난해 7월 ACLU의 손을 들어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원격 진료 후 우편이나 배달로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했고, 결국 기존 FDA 조치를 복원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이같이 판결했는데, 보수 성향으로 비대면 금지판결을 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김경열 목사



미국신대륙 정복사의 두 가지 교외 김경일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생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tbccenter.org / cjb@tbccenter.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a kids book about **CHANGE**

kids books that matter.

Ages 5+

Unknown Adaptability Courage Patience

“이민자의 자녀로, 청년 목회자로 사는 저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나 어른들에게도 변화는 필요하다!”

한인 이민자의 자녀로서 지금은 미국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는 저자가 삶의 큰 변화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변화를 겪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책이며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너무 적절한 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2020년에 가장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로 선정)

a kids book about CHANGE
by David Kim

akidsbookabout.com
Designed in Portland, Oregon
A Kids Book About, Inc

저자: 데이비드 김(웹사이트 주소)
구입문의: 웹사이트 akidsbookabout.com 단체주문시 할인

발행인 칼럼

백설의 복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 내게는 “거절 받는 것” 가장 두렵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절 받는 것이 유쾌하질 리는 없을 것이다. 내게는 확신이 있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데 누가 나를 환영해주고 좋아하겠는가. 그런 확신과 함께 문제가 있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으려면 환영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잘하든가, 남다른 재능이 있든가, 돈이 많든가 하는 등의 조건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 거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따뜻한 환영의 “오라”이시지 혼내 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다. 죄가 주홍 같은데, 죄가 진홍같이 붉은 데 부르시는 것이다.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영하신다.

지난 주간 뉴욕에는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가득 덮였다. 하루 이틀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행정명령도 있었다. 우리의 복음은 백설의 복음이다. 눈은 한 송이도 땅에서 솟지 않는다. 하늘에서만 쏟아진다. 눈은 가벼운 것 같아도 그 묵직함은 다른 어떤 것에 비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눈을 보게 하셨다. 이 더러움을 덮는 눈을 보게 하시면서 위로하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오라” 하시면서 “가라” 하신 분이 있다. 우리를 그 품에 안기 위해 그 품에서 버리신 분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죄인의 부르심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버리셨기에 가능하신 것이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백설의 복음의 배경에는 이렇듯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

지난 주간에 울면서 부르고 또 부른 찬송이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하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나는 이제 거절감이 두렵지 않다. 나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확신 속에서 얼마나 오래 동안 힘들어 했던가. 나의 그릇된 확신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 나를 환영하시고 예배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살기로 했다. 거절감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다. 나는 환영받는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이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백설의 복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 알고 맞으면 더 좋다!

BBC, 백신 둘러싼 정보과잉 혼란 감소위한 유익한 정보 제공

백신은 신체가 특정 감염, 바이러스,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준다.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대량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때때로 백신을 둘러싼 수많은 조언과 정보는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BBC는 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백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몇 가지 정보를 준비했다(Corona Vaccine: All About Vaccines with 6 Questions).

백신이란 무엇인가?

백신은 신체가 특정 감염, 바이러스,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준다. 비활성화 됐거나 약화된 바이러스 유기체를 체내에 주입해 질병에 걸렸을 때와 동일한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신체에 미리 ‘침사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인체의 면역 체계는 침입자를 인식하고 이에 맞서 항체를 생산해낸다. 대부분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내지만 일부는 팔에 통증이나 일시적인 열과 같은 부작용을 겪는다. 이후 신체는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

백신은 안전한가?

백신의 유래는 10세기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백신이 사용된 것은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명에서 300만 명의 사망자를 막고 20개의 질병을 예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인체에 임상시험을 하기 전 실험실과 동물 테스트를 거쳐야만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백신이 출시되기 전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물론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에 대한 위험

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달 또는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새로운 병원체가 체내에 들어오면 항원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생성하게끔 한다.

보통 백신은 일상에서 이

방식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백신이다.

이 백신은 약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유전정보 일부를 사용한다.

mRNA를 이용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정보를 전달하면, 체내 면역세포가 여기에 대응할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반면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작동 원리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일부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과는 다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를 감염시키는 보통의 감기 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이 유전정보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스파이크형 단백질로 알려진



수십억 명이 백신 접종하면 코로나19 전염 예방 인류는 집단면역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

어린 소년을 비교적 경미한 우두(cowpox)에 감염시켰더니, 천연두(smallpox)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서부터였다.

제너는 그의 이론을 시험해 2년 후 출판했고 라틴어로 소를 의미하는 ‘바카(vacca)’에서 유래한 ‘백신(vaccine)’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백신은 현대 의학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을 통해 매년 200만

이 있지만 이점이 더 많다.

특히 아동 질병은 백신의 개발로 전보다 크게 줄었고,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는 완전히 박멸됐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보통 수십 년의 노력이 수반된다.

아프리카에서는 30년간 백신 접종 캠페인을 펼친 끝에 지난 8월이 돼야 마침내 아프리카 대륙에서 소아마비가 퇴치됐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접종이 이뤄진 후 삶

항원을 만나기 전에 약화되거나 비활성화 된 항원을 체내에 미리 투입해 항체를 생성하는 원리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됐다.

코로나19 백신은 어떻게 다른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이전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바이러스 일부분의 청사진을 갖도록 변형됐다.

이 청사진이 체내에 들어 가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인체의 면역체계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백신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경험한 면역체계는 실제 코로나바이러스를 맞닥뜨릴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백신 모두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을 승인 받았다.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서는 이미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브라질은 옥스포드와 시노백 백신을 승인했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감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지아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및 미용성형외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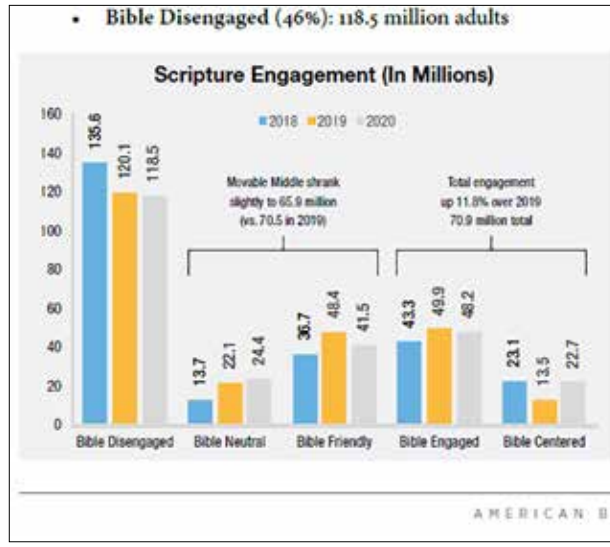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코로나19은 절망을 그러나 성경은 희망!

<1면에서 계속>
음식, TV 스트리밍 서비스와 기도/묵상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에 위로의 주요 원천이었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이들이 성경, 가족, 기도/묵상을 더 많이 찾는 경향을 보였다. 성경을 덜 보는 이들은 음식, TV 스트리밍과 처방약을 더 많이 찾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큰 미래를 보증하신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에 관한 성구는 우리가 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보다 우월하다. 그러기에 성경구절들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계속 전진해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가도 법원은 보수 절대 우위!

<1면에서 계속>
“이번 판결은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신 법원이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근거로 미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수의견을 낸 진보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 나라의 법은 더 위험한 다른 의료 절차 대신 임신중절수술을 꼭 짊어 더 까다롭게 만들어왔다”면서 “그런 법률처럼 이번 판결도 임신중절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에게 불필요하고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가 이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 중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3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며 ‘6대3’으로 보수우위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념적 노선에 따라 6대3으로 갈렸다”고 논평했다.

임신중절 문제는 미국에서 첨예한 정치적 이슈 중 하나다. 버렛 대법관이 임명될 당시 현지 언론들이 버렛의 ‘낙태반대론자’ 면모를 부각하기도 했다. 스티브 블라텍 법학 교수는 CNN에 “오늘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보수우위 대법원이 앞으로 임신중절 판결에 어

떻게 접근할지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출범을 일주일 남겨둔 바이든 행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 3명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항소법원 판사의 30%를 임명했다”면서 “이 충격은 오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일의 진정한 척도는 임신중절과 총기, 종교적 권리 등 수많은 법원 판결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바이든의 기후 변화 정책이 상하원을 통과해도 보수단체에서 절차상 흠결이나 기존의 법률과 상충 등으로 인한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입법

취지에 문제가 없어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기후 변화, 의료보장 정책들이 법원의 문턱에 걸려 좌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대법관 성향에 따라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정확히 갈렸다. 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은 잇따라 각각하며 정치적 쟁점에는 거리를 뒀지만, 낙태 같은 논쟁적 사안에서는 ‘보수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위력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총기, 성(性)소수자 등 찬반여론이 팽팽한 다른 이슈들도 줄줄이 대법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 잇달아 무더기로 행정명령을 내린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가도 법원은 보수 절대 우위!

<2면에서 계속>
다른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
우선 베이징에 본사를 둔 ‘시노백(Sinovac)’이 개발한 백신이 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백(CoronaVac)’이다. 코로나백은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죽은 바이러스 입자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이 백신은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임상시험 단계에서 효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브라질 임상시험에서도 50.4%의 효과만 보여 의문이 제기됐다.

또 다른 백신으로는 인도가 배부 중인 ‘코비실드(Covishield)’와 ‘코바신(Covaxin)’이 있다.
코비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이 공동 개발한 백신이다. 코바신은 인도 현지 바랴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했다.

러시아는 변형된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스푸트니크 V(Sputnik V)’를 개발했다. 아르헨티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고, 30만 도즈를 들여와 의료진에게 우선 접종을 시작했다.

현재 아프리카연합(AU)은 화이자, 아스트로제네카, 존슨앤존슨 등 제약사로부터 백신 2억7000만 회분을

임시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 프로젝트(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6억 도즈에 추가로 구매할 양이다.

나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할까?
백신 접종은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받지 말아야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에게 강력히 권고된다.

CDC는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팬데믹을 끝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밝혔다.

WHO는 코로나19 확산을 중단하려면 전체 인구의

65%에서 70%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과정이 너무 빨리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설계와 시험과정에만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는 이 과정을 가속했고, WHO는 이를 위해 과학자, 기업, 의료 기관과 협력해왔다.

핵심은 이것이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인류는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고 집단면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론

나의 다메섹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 잘 나가는 치과과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업의로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다 보니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벌어서 병원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가 한 번 투자기업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5만불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이익을 얻었으나 안타깝게 손실이 났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어 10만불을 다른 IT 벤처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도 초기에는 이익을 봤으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주식투자는 마침내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담보 대출을 얻어 다시 투자했지만 결과는 완전 실패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병원을 키우려다가 결국 그 병원까지 팔아서 빚잔치를 해야 했습니다(떠은 글).

이런 현상을 ‘상승적 몰입’(escalating commitment)이라고 합니다. 상승적 몰입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행동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빠져드는 역설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모스 트버스키는 “사람들은 손실의 관점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이 ‘프레임링 효과’(framing effect)”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손해 본 액수 5만불을 만회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10만불을 투자하고 결국 집과 병원까지 팔아 빚잔치를 해야 할 정도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프레임링에 사로잡혀 계속적으로 잘 될 것 같다 라는 상승적 몰입의 자기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프레임링 효과’와 ‘상승적 몰입’에 빠져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뻔히 떨어질 줄 알면서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투자하면 망하는 곳인데도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 도박하여 잃은 것을 다시 만회해 보겠다고 계속 도박장에 가는 사람들 등등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나름대로 훌륭하고 똑똑한 분인데도 어딘가에 흘러서 제 정신들이 아닙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몰입하여 판단이 흐려집니다. 전혀 그럴 분이 아닌데도 허망한 어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스스로가 개개인의 경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프레임링’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에게 올라미가 되어갈수록 자기의 개인적 경험이 깊이 빠져드는 ‘상승적 몰입’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결정과 판단의 주체는 자기 자신만으로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갈수록 심하고 격한 오기를 부리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개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하라 - 프레임링 효과, 상승적 몰입-고 유혹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걸로로는 예수 포옹하지만 속에는 자기 경험만을 최고로 여기며 주장하는 갈수록 독선적이고 교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사울은 ‘프레임링효과와 상승적 몰입’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자였던 사울이 자기 스스로의 경험적 독단과 오기의 ‘상승적 몰입’이라는 프레임이 되어 ‘그동안 나의 열심은 나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에 집착한 자기 경험이라는 열심의 프레임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 10:2-3).

아직도 사울로 사는 사람들, 자기 경험을 의로 여겨 독선과 독단에 열심인 사람들, 이런 자기 스스로에게 점점 빠져들어 ‘상승적 몰입의 프레임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그 틀(프레임)을 깨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의, 자기 열심에 상승적으로 몰입하는 틀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고 나와 바울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나의 다메섹’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 안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지혜와 축복입니다. 나의 다메섹에 간증의 역사와 찬송의 고백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pastor.eun@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요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진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목회, 유년, 중고등부: (주)오전 11:00, (토)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n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7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노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전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v.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김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찬양: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jkc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함향후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m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김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اید장로교회)



진정한 평화

오래전 아주 큰 부자가 평화를 완벽하게 그린 그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림을 찾을 수 없자 그는 콘테스트를 열어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사람들 앞에서 응모한 그림들

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모든 그림이 참으로 잘 그려져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뭔가 부족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두 그림이 커베에 그려진 채 남겨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은 두 그

림은 어떻게 기대하며 한 그림의 커버를 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잘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평온한 호수와 붉게 물든 하늘 밑에 있는 푸른 나무와 풀이 무성한 호숫가에서 양 떼들이 평안히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은 정말 일등을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그림의 커버를 벗기는데 그 그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 그림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듯 바위 위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고 그 분위기가 아주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번개를 치며 비와 바람을 몰고 오는 검은 회색빛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한 쓰러진 나

무가 폭포 가장자리 바위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의 구부러진 곳에 한 작은 새가 동지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폭풍의 환경에서도 만족스럽고도 평온하게 자신의 알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새는 눈을 감고 그의 날개를 그의 작은 알들을 위해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그림은 콘테스트에서 일등으로 당선되어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평화롭게 전개된 호숫가의 그림을 버리고 험난한 환경을 가진 그림을 평화를 표현한 최고의 작품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그림의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지만

은 않습니다. 언제나 전쟁과 질병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절대자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믿어집니다. 지금 온 세상은 펜데믹으로 일 년 이상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인 지금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들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46편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히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평화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김경열 목사

(뉴욕영안교회)



사람은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안일(安逸)을 경계해야 합니다. 뜻은 애쓰지 않고 평안함만 누리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안일에 빠지는 유혹입니다. 안일에 빠지면 삶이 무질서해지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안일할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다니는 위기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안일할 때 범죄의 늪으로 걸음을 수없이 빠졌습니다. 우리도 안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세속(世俗)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큰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속화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지 바너(George Barner)의 ‘주전자 속의 개구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쇠퇴해가는 세대를 영적으로 서서히 죽여가는 개구리 비유입니다. 세속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 도덕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환경(온난화) 위기입니다. 신앙은 세속을 경계하지 않고 있는 사이 걸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타협(妥協)을 경계해야 합니다. 타협의 뜻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신앙은 세상 것과 타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코 비복음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후13:5). 환경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타협하는 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공간 어떤 위치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이나

보석이 왜 가치가 있는가? 어디서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안일과,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혼함을 경계하고, 혈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시간을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가는 일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1)어려웠을 때보다 성공한 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과정보다 일을 성취한 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3)병들었을 때 죄짓지 않는데 오히려 건강할 때

에, 문을 닫고 빚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마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 후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성문에 빚장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더 중요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빚장을 채워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나

약한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지 않고, 자기탐욕이나 자기 이익만을 쫓습니다. 또한, 신앙심이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2절).

2.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둠에 노출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1)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3절).

해가 뜨기 전이란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특히, 어둠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을지라도, 경계를 소홀히 하면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습적인 침략은 어두운 밤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어둠을 틈타지 못하게, 해가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환경의 어둠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어둠은 더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는지, 도

문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도 문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어둠을 주의해야 합니다. 약한 영들은, 신앙의 문이 허술하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단속을 잘하고, 어두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벧전 5:8).

3. 또 하나,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고 경고했습니다.

1)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3절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안에 있을 찌라도, 자기가 사는 집은 자기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권면이나, 충고나, 중보기도가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큰 성벽을 쌓고, 백성들에게 자기 집을 각자 자

애급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40년 보내고 가나안에는 여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고성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 함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 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큰 것보다 하찮게 여긴 작은 것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풀립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 모퉁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태풍과 눈사태를 맞았으나 거뜰히 이겨낸, 나무는 어느새 500년이 지나고 거목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학자에 따르면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린 건 하찮은 딱정벌레였습니다. 작은 딱정벌레가 나무 속 까지 갉아먹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까짓 것 쯤 하는 작은 것들이 걸잡을 수 없이 무너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똑 같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았어도, 적들이 들어와 어둠에서 공격을 한다면 걸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온몸에 병이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암세포 몇 개가 안착하면 커서 암(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 뜨기 전에 즉, 어둠이 들어오기 전에 빚장을 치고, 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 신앙,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신앙에 빚장을 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신앙에 강한 빚장을 치는 영적행위입니다.

예배는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교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둠에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빚장을 치고 믿음을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연락처: (917)963-9356

영혼에 빚장을 쳐라

느헤미야 7장 1-4절

다를 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을 완성한 후, 이 성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1. 느헤미야는 먼저 관리하고, 돌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1)표상이 될 만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1-2절).

느헤미야는 백성을 보살필 표상이 될 만한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라도 지도자가 잘 서야, 백성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지도자를 잘 세워야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2)이들을 세울 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조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함을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성실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실함, 책임감, 진실함, 충성됨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런 것이

독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마24:37-51). 깨어있다는 말은 어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적들이 틈을 타는 시간입니다. 어둠에 선 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잠든 사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 영적인 대적들은 어둠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신앙의 문을 잠그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영적인 도둑을 맞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빚장을 잠가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도 어둠이 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도 문단속을 잘하여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해가 뜰 때까지 성문에 빚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성문이 허술하게 열렸을 때, 적들이 공격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았어도, 적들이 어두운 틈을 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한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교회도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2)또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인생경에도 잠든 사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생기는 100원짜리 동전 구멍만 있어도 들어온답니다. 삼손이 큰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세요(창15:10-13). 하나님의 언약대로 양과 소는 쪼개서 제물로 드리면서, 너무 작은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습니다. 약속한 불이 내리지 않았고, 바로 그때 쪼개지 않은 제물위에 솔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큰 것을 드리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응답을 막았고, 축복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이 430년 동안은



불들리고 매이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나서 당일 저녁부터 칠일간 무교절을 지나게 된다. 무교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신앙을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하게 된다. 왜 하필 칠일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유월절 신앙의 의미를 현실화시키는 일에 완전수를 사용함으로, 일평생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절기를 통해 저들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이는 것이 어떤 자유보다 위대한 축복이며 은혜이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붙들려 사는 복은 현실 세상에서 성도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트로트라는 장르의 음악열풍이 불고 있다.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그런 풍의 노래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혹은 동네 아저씨들이 아주 자랑(?)하게 부르는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갓난 아이부터 노년까지 가사와 조화되기 어려운 연령대까지 열

신앙생활이 되더라는 것이다. 교회를 떠나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감으로 회복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를 빼놓고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생활의 회복에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의 달력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든 인생의 좋은 것을 맛보기 시작한 샘의 원천이 교회였다고 고백한다.

실제 성도의 삶은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다.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훗날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결혼식을 하고 장년부와 실버회를 지나고, 마침내 그 주의 전에서 천국환송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곧 천국의 본점이다. 그곳이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평생 교회에 매여 삶을 산다는 것만큼 무미건조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참 복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이다. 최고의 인생을 경영하고 세상을 이기는 영혼의 힘을 분출하는 샘의 원천(原泉)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복된 삶의 방향과 교회

영혼의 저수지요, 구원의 샘터가 교회이다. 이러한 감격들은 과연 방향하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생을 바꾼 경우도 많다. 이처럼 교회로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은 항상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베푸실 하늘의 은혜가 넉넉한 저 장교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활의 회복에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의 달력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든 인생의 좋은 것을 맛보기 시작한 샘의 원천이 교회였다고 고백한다.

회복과 승리의 요새

스무 해 전 미국에 처음 올 때에 담임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제주도 여행도 한번 가보지 않은 나에게 미국 유학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그때, 샌안토니오에 있는 따님 가정을 몇 번 방문하신 경험이 있던 담임목사님이 말씀으로 엄청난 힘을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미국에 가면 한인교회가 있다. 교회가 힘이 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거기도 같은 아버지 집이다. 그리고 한 가지 목사가 되어 가면 별로 환영(?)받지 못하니깐, 안수를 조금 미루고 강도사로 가면 교회 섬길 곳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시카고, 컬럼버스 오하이오, 리틀락 등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었고, 교회에서 예배하

한 것이다. 내 방 책장에는 대략 3천권 정도의 책이 빼곡히 꽂혀있다. 그곳 어딘가에 나의 유언장이 얼마의 용돈과 함께 들어있다. 비행기 타고 다닐 일이 많았던 때에 친구 중에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지 못한 슬픈 일을 지난 후 혹여 모를 일에 대비하여 준비한 것이다. 가끔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 그 내용의 가장 주된 것이 무엇인가? 숨겨둔 재산이나 돈이 될 것은 전혀 없다. 보물 찾는 재미를 느끼도록 얼마의 용돈을 두었을 따름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주는 당부의 내용이다.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내용의 연결이다. 그러나 한가지 성도들에게 전하기에 부담되는 것도 가감 없이 포함시킨 것이다.

'애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꼭 가야된다. 교회중심으로 살아라. 처음 교회에 가게 되면 먼저 교회의 세워진 리더십에 순종하며 지내고, 나중에 교회가 헌신을 원하면 꼭 순종하면서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를 섬기는 너의 자세가 곧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같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 종말이 훨씬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는 종말론적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영희 권사

A: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종말론적 의식(Eschatological consciousness)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면 언제나 현재의 시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항상 현재의 것 같고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나 이 세상의 종말은 모래시계와 같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고 마지막을 향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에 의해 인간 역사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종말론적인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왔느냐는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윤곽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 나가는데 중요한 키(key) 중에 하나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며 계8:13의 3가지 화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지금은 계9:1-11의 첫째 화 즉 "황충이의 재앙"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연기가운데는 황충이가 있는데 그것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 재앙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영적 재앙 후에 둘째 화 즉 육적 재앙인 "유브라데강 전쟁"이 그 후에 나옵니다(계9:12-21). 인류 1/3이 죽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황충은 종말의 기독교를 대적하는 악사상들로서 해 즉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여 세상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

적그리스도 인본주의 악사상들이 전 세계 공격

둑게 하고 타락시킬 영적재앙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악사상은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주의, NEW AGE, WCC, 다원주의 사상 등으로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공격하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는 과거에 죽었던 것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되살아나 이 악사상이 인권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전위부대로 세워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neo-maxism" 주의자들이 판을 치려합니다. 이들은 결국은 루시퍼를 찬양하는 자들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여는 전위부대인 셈입니다.

미국은 지난 4년간 친 기독교 정책을 폈던 트럼프 시대가 지나고 바이든 대통령시대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성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친동성애, Pro-choice(친 낙태), 친이슬람, 친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성향을 우리는 바이든의 정책을 통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오바마 카피라 할 수 있습니다. TVNG 대표인 김사라 사모가 작년 11월 미주크리스천신문에 쓴 글에 의하면 조 바이든이 2020년 11월에 발표한 "Early Executive Actions"들은 1)트럼프가 그동안 펼친 친 기독교정책을 다시 무효화하고 오바마 정책들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2)트럼프가 ISIS 테러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금지했던 Major(과격) 무슬림국가에서 오는 무슬림들을 다시 받기 시작할 것이며 3)트럼프가 막은 무분별한 모든 낙태를 허용하고 오바마가 Planned Parenthood(PP) 낙태 대기업에 주었던 납세자 세금의 자금들을 다시 PP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트럼프의 4년 동안의 기독교 정책을 서서히 폐지하고 상당히 좌클릭하면서 LGBTQ의 권리확대와 인본주의, 세속주의,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될 것이며 교회와 복음주의자들은 많은 정신적 고난과 압박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바이든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그들도 친동성애 친낙태 반기독교적 성향으로 돌아서도록 만들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성경을 대적하는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인본주의 악사상들이 전 세계를 공격하고 덮는 영적 재앙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선과 악, 진실과 불법, 기독교와 사탄의 악사상,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영적 대결을 하는 첫째 화의 시대입니다. 이 첫째 화가 무르익으면 이제 둘째 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존 맥아더의 말대로 세계 정부를 구성할 적그리스도(Anti-christ)가 오기에 완벽한 조건을 이루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을 이기는 현실 신앙

- 교회, 은혜의 강수(江水), 거룩의 능력

심히 있음을 본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기독교방송 간증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가수도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본다. 그중에 한분이 눈에 띄었는데 걸보기에도 느끼한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흰하게 잘생긴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 내가 느끼는 느끼함을 말했다니 옆에서 열등감(?)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잘생긴 외모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젊은 시절 엄청난 방황, 술과 담배를 하면서 밤새워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밤새워 놀고서도 주일은 꼬박꼬박 지켰다는 것이다. 워낙 어릴 때부터 주일은 당연히 교회가는 날이고, 교회안가면 인생종말인 것처럼 배웠던 탓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몸으로 배운 것이, 훗날 청년시기의 극한 방황 중에도 마침내 길을 찾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당신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당신을 지켰습니다.'

현실교회의 소중함

모든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속에 현실 교회가 아주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본다. 방황하던 중에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결 같이 교회를 향해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교회생활이 곧

방황하다가 주님과 만남으로 결국은 다시 교회에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기존의 교회에 나오는 이들에게 예비하신 축복도 삶의 방향은 항상 교회이다. 삶의 방향을 더욱 교회로 가까이 밀착시키며, 꿈을 꾸듯 이 교회를 사모하며, 세상의 천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나은 삶과 같은 복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 그는 어떤 인생의 방향도 없을 것이며 세상 앞에서 담담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항상 교회중심으로 삶을 살아왔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과 승부하며 이겨왔던 것이다. 교회생활이 분명하면 신앙의 방향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와 이웃을 향해서도 뜨거운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전도도 그들에게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단지 '애야 교회 가자, 교회 다녀왔니?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간절한 그 마음을 전함으로, 못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불신 결혼한 딸에게 친정엄마가 그렇게 소원하며 교회 다니라고 권했는데, 듣지를 않다가 엄마가 섬기던 교회에서 드러진 장례식 설교에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탁했던 그 교회에 몸을 붙였다는 것이다. 중 고등학교 때 참한 여학생을 만나려고 교회를 갔다가 교회조직에 완전히 몸을 담그게 되어 목회자가 된 이들도 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갔다가 주님 만나고 인

고, 찬송하고, 성경공부하면서 전혀 낯선 곳이 아닌 동일한 아버지 집의 평강을 맛보며 안정을 찾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디서나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가사 하나 하나에 감격하며 영혼과 삶에 평안을 맛보며 워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일들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담임목사의 위치에서 그 간증과 고백을 전달하게 된다. 자녀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가 어려서부터 사정없이 교회를 떠나 이 주하게 될 때 항상 기도하며 당부를 한다. '교회가 힘이 될 것이다. 교회가 네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주일은 네 날이 아니다. 세상천지가 없어져도 주일은 꼭 교회를 가야된다.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너의 평생에 없다. 네가 교회를 가고 주일을 지키는 것 같아도, 주님의 교회가 너의 영혼과 삶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록 권한다. 교회생활의 승리가 삶의 승리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교회생활에 실패하면 당장은 온전한 듯 하여도 끝이 좋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최고의 기도와 유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 마지막 기도와 당부는 늘 교회에 대

님을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다. 교회에 충성꾼이 되어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담임 목사님에게는 아빠에게 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겨라. 설날과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 목사님과 사모님 생신에는 크던 작던 꼭 선물과 식사로 섬기도록 하여라(이 부분은 사적인 유언이지 아니하며 혹여 하면서 옮겨본다). 혹여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너의 신앙 양심을 해칠 만한 일이 생기면 조용히 변론 없이 침묵하며 교회를 떠나도록 하여라.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내가 섬기던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할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새롭게 섬기는 교회에 최선을 다해라. 너의 엄마에게는... 등등'

현실 교회의 목사이기에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가르침으로 인해 나타날 열매와 부작용사이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기에 위와 같이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먼 훗날 그렇게 하나님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전하여도 오해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영권을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로컬처치중심의 신앙

이토록 강조하고 당부하는 교회는 철저히 눈에 보이는 Local Church를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참 성도들의 모임의 멤버십은 주님만 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교회와 충성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지역교회를 향한 섬김과 이해를 말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본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나가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현재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자들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예배자는 분명히 그 멤버

십을 Local church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의 기존 성도가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한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참된 성도이고, 믿음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현재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자들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예배자는 분명히 그 멤버십을 Local church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davidnjeon@yahoo.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말리(Somali)

소말리족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동질적인 종족 중 하나다. 그들은 공통언어를 사용하고 단일종교를 고수하며 유목생활방식에서 필수불가결 부분인 문화유산을 공유한다. 소말리족의 정체성은 그들 동족집단과 소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거주하고 있다. 소말리족은 본래 지부티 또는 소말리아에서 그들의 가족 떼를 위해 물과 목초지를 찾아 발원한 양을 치는 유목민이다. 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매우 독립적이며 위험, 굶주림 또는 목마름에 굴하지 않으며 다른 부족과 민족들과의 전쟁에 끊임없이 연루되었다.

삶의 모습

'소말리'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위해 가서 짐승의 젖을 짜시오'라는 의미의 'so maal'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소말리족에게 이것은 실제로 격의 없는 현대의 표현이다. 소말리 유목민들은 그들의 낙타, 염소, 양떼와 함께 물과 목초지를 찾아 사막을 떠돌아다니지만 그들 자신을 전사라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가족떼를 먹이기 위해 자주 여자들을 떠난다. 그래서 그들은 보다 실천에 능한 투사로 훈련되어졌는지 모른다.

그들 사회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되는 핵가족에 기초한다. 남성은 가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형적인 가정은 양이나 염소 떼와 약간의 짐나타를 소유하며 낙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그 지위가 높다. 그들은 씨족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열되었으며 그들 동족 이

외의 공동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유목민들은 휴대용 움막에서 생활하는데 그것은 목초로 된 거적으로 덮인 나뭇가지로 만들어진다. 그것들은 쉽게 접을 수 있어서 운반용 동물에 실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이동한다. 일상음식은 우유, 낙타와 염소고기, 쌀 그리고 다른 곡물 등이다. 차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음료다. 풍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씨족들 사이에서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 각 가족은 주기적으로 연회를 열어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한다. 가족의 지위는 잔치의 빈도, 초대된 사람의 수 그리고 제공되는 음식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소말리족은 토기(혈관한 걸음)처럼 그들의 몸에 걸쳐 입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다. 남자들은 덮개 같은 킨트(세로주름이 있는 짧은 치마)를 입고 기도 한다.

소말리족은 일부다처제로 아내를 4명까지 거느릴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종교교육을 돕기는 하지만 자녀양육 책임은 아내들에게 있다. 이혼률이 높다.

신앙

소말리족은 99.9%가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종교적 체형'이 되는 Sufism(이슬람의 신비주의적 지류)의 부류인 Shafite 이슬람교도다. 그들은 주문을 외우는 일과 최면에 의해 종종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다. 관례적인 이슬람 기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띈다. 그러나 소말리 여성들은 베일을 전혀 쓰지 않는다. 각 사람들은 축복, 기도 그리고 세상일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종교전문가인 wadaad를 자주 찾는다.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이슬람의 최고 성지인 메

카를 향해 기도해야 하며 2백만 이 넘는 이슬람교도들은 매년 메카를 향한 성지순례를 떠나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메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모든 기독교 서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스크를 건축하고 이슬람교사를 파송해 전 세계에 이슬람을 전파하는데 거액을 소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종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지며 그것을 통해 매년 2천8 백만부의 코란이 인쇄되고 있다.

필요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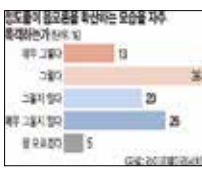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말리아인 4만명 중 알려진 신자의 수는 겨우 15명뿐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말리족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알려진 선교단체는 전혀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목회자 49% "성도들이 음모론 확산..."

미국 교회 목회자 2명 중 1명은 성도들이 음모론(가짜 뉴스)을 확산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 웨이리서치는 목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도들이 음모론을 확산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3% 포함)고 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각각 20%, 26%였다.

조사에서는 남성 목회자(50%)가 여성 목회자(35%)보다, 백인 목회자(50%)가 흑인 목회자(36%)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젊은 목회자일수록 성도들이 음모론을 확산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 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와 대선 이슈를 중심으로 각종 음모론이 퍼지며 '심리적 내전'을 겪었다. 특히 대선 전후로 상황이 심각해지며 구글에서 '음모론'(conspiracy theory)을 검색하면 1억2000만여건이 나올 정도였다. 5년 전 대선(2000만여건)에 비해 6배 늘어난 수치다.

기독교 전문가들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공유·확산되는 현상이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대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진리 안에 살기'의 저자인 기독교변론가 메리 조 사프는 "정보에 대한 무책임함은 성도로 하여금 거주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넓은 범주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비논리적 비과학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도들이 소셜 미디어에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선한 영향을 미칠까'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스톡 매코널 라이프웨이리서치 총괄디렉터는 2019년 조사에서 기독교인 55%가 '최근 6개월 동안 전도한 적 없다'고 응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조사결과를 우려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구원의 확신 등을 전하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임에도 많은 성도가 불확실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에너지가 쏟고 있다"며 "전자는 확고한 희망의 메시지이고 후자는 흔들리는 두려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화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4%다.

미국 응답자 28% "코로나로 신앙심 강화"

'코로나19가 가져온 종교적 신념(신앙심)의 변화'에 관한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가 14개 선진국 중 '신앙심이 약화됐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14개국의 성인 1

만427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다. 14개국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대한민국 스웨덴 영국 미국이다.

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응답자의 9%가 '신앙심이 약해졌다'고 답해 조사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 평균(3%)을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5% 이하로 나왔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심이 강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28%로 가장 높았다. 스페인(16%) 이탈리아(15%)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10%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 중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이들이 범위를 좁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심이 강해졌다'는 응답 비율은 스페인(49%) 미국(48%) 이탈리아(44%) 등의 순으로 높았고 우리나라는 30%로 하위권이었다. '신앙심이 약해졌다'는 응답의 비율은 한국이 1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본인 외에 자국민의 신앙심'을 주제로 한 질문에서도 대한민국은 '약화됐다'는 응답이 1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미국(14%)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10%)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도 조사됐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응답자 10명 중 4명가량이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답해 코로나19가 가족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보인 그룹으로 분류됐다. 반면 독일(13%) 벨기에(11%) 한국(10%)은 '가족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미국인의 35%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이 인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퓨리서치 측은 "응답자의 다수는 '코로나19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지난해 봄 코로나19 확산 당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국민의 신앙심이 강해진 점은 주목할 지표"라고 밝혔다.

백신이 먹히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신규 감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효과가 확인되면서 팬데믹 탈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영국 BBC는 1일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와 접종을 가장 일찍 한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대폭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은 인구부터 신규 감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국가보세 조치와 별개로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BBC는 전했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60세 이상 인구 74만3845명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531명에 그쳤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0.07%로 매우 낮은 감염률이다. 감염자 중에서도 입원할 정도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38명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차 접종을 마친 100만여명의 사람 가운데 사망자는 단 3명뿐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년까지 전체 인구 약 930만명 가운데 308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30%에 육박한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179만명이 넘는다. 지난달 중순 하루 1만명 선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하루 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국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기준 버지니아, 메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4개 주를 뺀 미국 전 지역에서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줄어들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연말연시 연휴를 지난 뒤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다. 제이 버틀러 CDC 전염병 부국장은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응급실 방문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며 "고무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운영 중인 백신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1회분 이상 접종한 이는 이날 오후까지 2650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존스홉킨스대에서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2630만명)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미국은 현재 백신을 하루 134만회 분씩 접종해 하루 단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보급 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주간 미국인 7.8%가 접종을 했다.

국제 문제로 비화된 미얀마 사태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얀마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얀마 민주주의 증진으로 해제했던 경제제재를 부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미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경우, 미얀마가 중국에 더욱 밀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아랑곳 않고 권력 장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쿠데타를 통해 야오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구금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세운 군부는 문민정부의 장·차관을 대거 교체했다. 일각에서는 수치 고문이 민주화 과정에서 군부에 게 상당한 권력을 남겨졌던 게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2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얀마 사태를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유엔은 이번 쿠데타로 미얀마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인권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미얀마) 라카인주에는 수용소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지내는 12만명을 포함해 모두 60만명의 로힝야족이 남아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기본적인 의료·교육서비스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라며 "이번 사태가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킬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출범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문제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기 명의로 직접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로의 전환 및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민주화 과정에서 해제됐던 미국의 양자 경제제재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군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미얀마를 지나치게 압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 더욱 밀착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계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

략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얀마는 군부독재 시절 중국과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국제사회 각국이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문민정부 시절 정부 고위 인사를 대거 갈아치우며 사실상 군사정권 복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늦게 국영TV를 통해 문민정부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고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금 '공매도 전쟁' ...

미국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증권사들이 특정 종목의 개인 매수를 금지한 가운데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폭탄을 투하해 주가를 폭락시키며 공매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게 타올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료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이날 공지를 내고 '극심한 시장 변동성에 따른 고객 보호'를 이유로 들어 게임스탑과 AMC,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등 13개 종목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위블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등 주요 업체들도 잇달아 비슷한 조치를 강행했다. 한국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이용자들이 거래 제한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이날 개인 투자자 매수 금지 대상에 오른 종목들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 합심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들이다. 이들의 '매수 운동'으로 주가가 폭등하자 이 종목들에 손 포지션(공매도)을 취한 기관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700억달러(약 78조1200억원)를 넘어섰다.

개인 매수가 금지된 상태에서 기관들이 대규모 '공매도 공세'를 벌이자 주가는 수직하락했다. 이날 장중 최고 483달러를 돌파했던 게임스탑은 서킷브레이커가 7번 연속으로 발동되며 한때 112달러까지 급락했다.

개인 투자자의 사랑을 받으며 높은 이용률을 기록해온 로빈후드가 기관의 펀드로 돌아서자 트위터와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헤지펀드 등 대형 금융기관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로빈후드가 개미들에게서 투자 옵션을 뺐었다는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로빈후드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로빈후드의 매수 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로빈후드의 거래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동안 왜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매매 제한이 발동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의 트윗을 공유하며 "완전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월스트리트베츠 이용자들은 '제2의 게임스탑' 종목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 공매도와 의 전쟁은 더 확대될 조짐이다. 개미들이 기관과의 이번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위를 점하며 시장을 이끌어온 월가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백년지대계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관자'라는 사상가들의 글을 담은 중국 고전에 기록되어 있다. 곡식과 나무를 심는 계획은 각각 1년과 10년이 적당할 것이라면, 사람을 위해서는 한평생을 내다보며 장기적 계획을 세우라는 소중한 교훈이다. 곡식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다. 곡식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늦은 나무도 일단 몇 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인으로 기능하는 성인이 되기까지 매우 느리게 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투자하면 곡식이나 나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양과 질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효과를 아는 부모들은 자신들의 교육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빠를수록 좋다.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다. 어린 나이부터 신앙의 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상황은 어떤가? '백년지대계'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는가? 주일학교 교육이 큰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더 이상 숨겨진 사실이 아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과연 다음 세대에 교회에 존립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인 듯하다. 한국에서는 출산율 급감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초등학교 폐교 현상이 일어나고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여기고 지켜보고 있어야 할까?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교육하는 기관이었다. 근대교육이 발흥한 역사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 복음을 들고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의 공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교회의 중대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교회보다 학교가 먼저 세워진 이유는 조선 정부가 종교적인 관심보다 서구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어 다음해에 친선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 결과 미국 선교단에게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 자제를 취하였고, 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고종황제가 1884년에 의료사업과 교육에 관한 윤허를 내린 것이다.

1885년 6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1859-1916)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1858-1020)가 함께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즉시 그들은 각각 한국 최초 근대식 중등교육기관

을 설립하였다. 고종황제가 직접 교명을 지어 하사했는데, 경신학교는 '새로운 것을 깨우침' 또한 배재학당은 '인재를 기르는 집'이란 뜻이다. 1885년 이후 선교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전국에 신식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점차 개화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적인 인재들이 다수 양성되었다.

주일학교 교육

1898년 6월, 조선정부가 처음으로 윌리엄 스왈론(William Swallon, 1859-1954) 선교사에게 선교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13년 동안 학교 교육에 임하였던 선교사들의 성실한 모습이 얻어낸 결과였다. 그 후로 선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육을 통한 어린이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역에 임하게 되

수 특권층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계층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선택이란 의식이 생겨났다. 결국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은 무상 공립학교 교육의 기초가 된 것이다.

미국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1785년이었다. 영국 주일학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공립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 빈민자녀와 노예들에게 읽기와 쓰기,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국교회도 1825년부터 주일학교를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받아들였다. 1830년에 주일학교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1865년에는 교사들을 위한 잡지가 발행되었다. 1872년에는 모든 교회내의 주일학교가 유사한 교재를 가르치게 하려는 의도로 통일공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초창기 한국에서 교육

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1890년에 채택된 네비우스 선교정책 가운데 주일학교 사역을 매우 중요한 실천적 사역으로 받아들인 결과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1905년에 미국에서 사용되던 통일공과를 번역하여 편찬하기 위해 선교연합공의회 안에 주일학교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13년에는 세계 주일학교대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복궁에서 대규모 주일학교대회를 열었다. 그 결과, 주일학교의 수가 급증하고 크게 부흥하였다. 한국 주일학교 역시 영국과 미국에서와 유사하게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교육과 함께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사역이 포함되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이외에 1894년부터 조선정부의 관제 개혁을 통해 소학교와 사범학교가 세워졌으며, 민

변하여 전도를 통해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각 교회 주일학교는 비전공 신학생 신분의 교육전도사가 많아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갓 입학한 젊은이로부터 졸업을 위한 실습 필수과목을 이수하려는 나이가 지긋한 신학대학원생까지 매우 다양했다. 교사훈련이나 교육제도 또는 교수법 등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였으며, 교육전도사가 새롭게 부임할 때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혼동을 경험하기가 일쑤였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현재 근본적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995년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늦게나마 손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교회마다 교육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교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을 위한 재정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학부모회를 통해 교회와 가정에서의 교육적 협력을 도모하고, 자녀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서로 나누는 등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왜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자녀교육을 잘 시킨다고 소문이 난 교회로 젊은 부모들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일학교 교육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을 위한 수단인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주일학교 교육의 기반 구조에 대한 개조가 급선무인 것이다. 교회가 변화해야 먼저 변화할 결과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탈 교회현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는 패배해지는 개인주의와 거친 세속문화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아이들이 지닌 진정한 고민이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첨단 교육 시설과 교육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중심된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면, 교회가 지상에 존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롭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품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장의 효과를 보여주는 교육방식은 실망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훈련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가르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8)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14)-교회 교육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디지털 시대 주일학교 교육도 첨단 교육시설과 교육 방법 확보 교회는 복음 통한 구원이 중심된 신앙 가치를 우선순위에 뒀다

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교회에 전달한 미국교회의 주일학교 사역의 기초를 1780년경에 시작된 영국교회의 주일학교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영국은 농업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와 혼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때 아이들이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장시간 아동노동을 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중상류계층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영국 글로스터에서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 1736-1811)라는 평신도가 주일마다 사회로부터 무시 받던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문맹을 깨우칠 수 있는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기독교 교리 교육과 함께 성경에 근거한 도덕예절을 실천하게 하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 시작된 후 4년 만에 전국 어린이 가운데 25% 정도가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또한 사회적으로 교육이란 소

을 담당했던 미국교회 출신 선교사들은 교회가 어린이의 신앙교육과 사회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어린이의 소중함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천도교 신자였던 방정환에 의해 어린이날이 제정된 해가 1923년으로서,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분만 있었던 그 당시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던 사회 모습을 반증하여준다. 사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철저한 어른 중심의 사회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을 찾은 미국 선교사들이 오래 전부터 복음의 관점에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계몽하고 선도하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1888년도였다. 최초 외국인 여성 선교사 이화학당의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1932-1909)은 자신의 집에서 12명의 여학생

간있게 사립학교는 이보다 더 활발하게 설립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근대사학의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애국사상이 함양되었으며, 국권회복에 이바지한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배출되었다. 기독교 교육 역시 구국운동에 큰 몫을 차지하였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에 불과 1%밖에 되지 않던 상황 속에서 1919년 독립운동에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가치의 회복

1945년 8월, 교회를 탄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일제가 항복을 선언했다. 세상이 달라졌다. 교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복음전파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육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못하게 되었다. 전에는 아이들을 향한 기대와 정성으로 임하였지만, 교회의 중심으로부터 부수적인 사역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을 중점사역으로 출발한 한국 교회였지만, 상황이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부구 영구로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39-06-343-8676(교우관)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윤진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52-38 00175 ROMA, ITALY</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7부: 오후 7:0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세백기도회: 오전 5:00 세백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중구 역삼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세백(02)389-2235 (110-290) 서울시 성북구 이태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세백(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세백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고동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14-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cheon.org</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병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2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51길 50-1 www.anamjeil.or.kr</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동 415 www.yangkug.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세백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9-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세백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천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p>

리더십 코멘터리 (128)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고난과 역경 극복의 리더십

인내심에 한계가 왔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인생을 관아를 통과하거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인내심에 한계가 왔는가? 그러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인내가 필수적이다. 인격의 수준을 여러 가지 척도로 측정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내이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잘 인내하느냐가 바로 인격의 성숙도이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인내의 사람들이었다. 비전을 이루어 가는 선각자들은 인간의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비전을 찾아내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자.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새

러 일으켜 낙천주의를 전파하는 이들이라 불릴 것이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가져오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가는 리더들을 역사는 선각자라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산이 가로막는다 해도 물러서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기어오르고 길을 찾아내라. 그리고 터널이라도 뚫어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곳에 앉은 채로 산을 황금의 광산으로 변하게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라는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적합한 위대한 메시지이다. 적극적인 사고가 생애의 산을 옮긴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이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리더 앞에서는 산도 녹아버릴 것이다

창조적 리더십의 원리

복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없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 돌아보고 지켜야 리더십 원리: 소명에서 출발, 비전제시, 사랑실천, 겸손을 기본으로

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그것들을 번갈아가며 검토해보자. 그래서 도전해오는 문제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오히려 그것들을 기적과 같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

새로운 시작의 요건

2월 12일이 설날이다. 우리 모두는 1년에 2번씩이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옛 습관, 옛 체질, 옛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나간다면 어느 순간 체질이 바뀌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게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창조적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리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집을 짓는 리더들이여, 여러분들은 희망의 후원자, 용기의 창조자 그리고 열정을 불

가슴이 뜨겁고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영적리더란 정욕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삶에 쾌락을 느끼지만 복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지켜야 한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을 주님의 굳건한 터 위에 두라. 영적리더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열정이 가슴 속에 일어나야 한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면 영적리더십은 자연스럽게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다. 창조적 리더가 되기 위한 4가지 리더십의 원리에 충실하자.

첫째, 소명에서 출발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충실한 리더들을 세워나가신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 소명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목표를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하여 거기에 대한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소명적 의무를 지닌다.

둘째, 비전을 제시하라. 비전이란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이다. 비전은 리더가 자신의 그룹이 어떠한 야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분명한 그림이다. 리더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해 헌신을 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당당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출발은 거창했지만,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값진 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셋째, 사랑을 실천하라. 리더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거나 버림받은 병자들을 고치는 등이 '사랑'을 기초로 이 땅에서의 리더십을 나타내셨다. 사랑으로 대하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것을 기초로 한 리더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넷째, 겸손을 기본으로 하라. 리더로서 잠재력을 키우고 싶다면 비판을 듣고 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한다. 리더의 평온은 겸손으로 육성되며, 겸손을 통해 삶의 확장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겸손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으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태도 등으로 말할 수 있다.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리더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힘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리더로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표류하는 갈등보다는 명확한 비전을, 세속적인 권위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섬기는 겸손을 발휘하길 기도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나의발견

사람은 자기가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바쁘게 산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자신이 하는 일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산다. 모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그렇게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아는 사람을 대하면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아닐까. 그는 권세 지위 부귀 여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데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까지 받아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그리고 전도서에서 그는 자기가 가진 외적인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 한지를 계속 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성공의 사다리를 계속 기어오르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가 잘못된 벽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성애 오피스 후야에 깨닫는다. 그래서 그야말로 잘 빠진 외모, 좋은 관계, 훌륭한 직업 등 모든 부러운 것들을 한 몸에 지닌 후에도 여전히 가슴이 시리며 이런 삶 가운데서 오히려 넘쳐 흐르는 것들로 인해 마음에는 때가 끼고 몸은 무거우며 영혼은 생명의 근원에서 말라가서 한 순간 순간 힘겹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창 2:7) 이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우리 신분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을 통해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되찾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나 무엇을 소유하였는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나의 존재의 시점이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필요를 세상과 육체, 마귀를 통해 충족하는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빌4:19) '채우시는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이다. 그렇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칭찬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한 일은 오직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것뿐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과 새 이름을 받았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요일3:1-2).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 신분에게 맞는 삶을 시작하리라. 나는 오늘도 기도탁자 앞에 앉아 촛불을 켜며 일기장에 짝막한 글을 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자신을 맡기며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질주해가리라.

changsam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전 9:30~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20 영어예배: 오후 7:30 영아예배: 오후 9:20 수·금요일예배: 오전 9:2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저녁 7:3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7:00 성년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유아예배: 오후 1:30(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전도교회 협동목사 주일사역(월-금) 오전 9:45(월요일) 사역대상: 1. 영성신앙 2. 영성회 3. 영성심도 4. 영성사역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어생김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목회서신

소중한 멤버십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로또 당첨과 같은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앞으로 더 좋은 백신이 나올 것이니 부작용의 위험이 조금 있는 백신을 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신청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 속히 완벽한 백신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전 신청등록증도 없이 무작정 집 가까운 백신접종장소로 차를 몰고 찾아갔었는데 입구에서 등록 멤버십 증서를

요구하여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멤버십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는 멤버십 시대입니다. 백화점, 헬스클럽, 연구기관, 정치모임 등 각양각색의 멤버십 제도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유익한 그룹의 멤버십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는 듯합니다. 멤버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멤버십은 의무도 따르지만 혜택도 주어집니다. 멤버십의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가진 멤버십 중에 참으로 소중한 멤버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교회 멤버십입니다. 교인이 되고 교인으로서의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 교회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 는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소중한 멤버십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이민교회 주변을 보면

교회는 돌아다니는 성도인데 일정한 교회의 멤버십을 외면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 그리고 교회공동체에서 무슨 아픈 경험을 했기에 그럴까 자책하고 안타까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멤버십을 올바르게 가지는 곳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멤버십에 대한 기록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중 하나님의 군대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멤버십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멤버십 소유자들은 거의 가나안 입성의 낙오자가 되었고 후반에 나오는 멤버십 소유자들은 가나안 복지 입성에 성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그 두 그룹의 차이

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들이 가나안복지 입성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여 심각한 돌발 사태를 일으킨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보면서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저는 민수기서가 보여주는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이민교회 혹은 교회목회의 축소판이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부담스러운 교인들 말입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화가 나서 모세처럼 화를 내는 듯한 목사인 나의 모습 말입니다.

결국 출애굽 일세대인 육십만 삼천오백오십명의 소중한 멤버십을 가졌던 이들은 여호

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전부가 낙오하였고 출애굽 이세대들 육십만일천칠백삼십명과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가나안 정복군대로서 가나안 복지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것이 아닐지요. 현실 세계에서 쫓겨갈 이 흐르는 운택하고 풍성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생활일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젠가 어느 시인의 시적 표현처럼 지구촌의 소풍이 끝날 때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천국 문 앞에 설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곧 소중한 천국 멤버십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도록 말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cyd777@hotmail.com



미국신대륙 정복사의 두 가지 과오 인디언전쟁과 노예제도...그 역사왜곡(1)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서론

청교도 미국 역사에 있어 비성경적 노예제도와 특히 인디언 원주민과의 대규모 전쟁을 통한 인디언 학살(?)에 대한 부분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역사의 정실적 지주로서 청교도 역사의 큰 명암이요, 치욕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함께 청교도의 인디언에 대한 보은의 표시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청교도를 도왔던 윌리엄 피츠제럴드는 1977년부터 매년 11월이 오면 플리머스에서 "죽음에 처했던 백인들을 도운 대가가 오히려 학살이었다"라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잘못된 명절이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선교사들 또한 인디언들을 그들의 땅에서 추방되고 학살한 이 잔혹한 역사에 침범(?) 역할을 담당했다는 기록도 있다"(크리스천 투데이 2007. 11. 15, 인디언 선교 어디까지 왔나?)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지난 3세기 동안 북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종족청소(Ethnic Cleansing)'는 선교사역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보다 수 백년 앞서 북을 점했던 인디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다. '명백한 운명론'(Manifest Destiny), 즉 '백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신대륙을

지배하도록 운명 지워져있다'라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백인 정착민과 인디언 원주민과의 정복 전쟁은 노예제도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역사의 과오(?)로 남아있다.

인디언선교, 즉 복음전파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민간인 신분인 청교도들이 자행(한 전쟁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인 인디언과 백인 정착민과의 전쟁이다.

첫째, 1620년 청교도 이주 이전의 콜럼버스와 열강들과 인디언의 전쟁, 둘째, 1620년부터 1776년 미국독립 전

까지는 영국 국왕의 통치를 받는 영국식민지 정부군과 인디언의 전쟁, 셋째, 1776년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군과 인디언과의 전쟁이었다. 지금부터 그 진의(眞意)를 논하고자 한다.

1. 미국 인디언 전쟁(American Indian Wars)
1622년에서 1890년 사이에, 미국 백인정착민(White Man)과 미국 원주민인 아메리칸인디언 사

이의 정복전쟁을 총칭하는 말이다. 초기부터 아메리칸인디언과 이주민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열강의 식민지 전쟁과 맞물리면서 대규모화되어갔으며, 북미식민지 전쟁, 인종청소, 학살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제임스타운(버지니아주 리치먼드, 1622), 피쿼트 전쟁(코네티컷, 1637), "블루리버(에브레스크,

1654), 베리리버(아이다호, 1863), 샌드크리크(콜로라도, 1864년), 와시타리버(오克拉호마, 1868), 캠프 로빈슨(네브래스카, 1878), 동디즈니(사우스다코타, 1890) 등을 들 수 있다"(위드 처칠, 그들이 온 이후, P.38).

1)미주 식민지와 열강들
149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유럽인들에게 바다 건너 신천지는 '꿈의 땅'이었다. 신대

륙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고 '해변가에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고 금으로 냄비를 만든다더라'는 식의 환상만이 무성했다.

반면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영국은 1500년대 들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식자자가 많아지는 불황을 겪고 있었다. 자연히 스페인 제독이 발견한 신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하자 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당시 런

던에서 한창 인기를 끌던 '서쪽으로!'라는 연극도 사람들을 부추겼다.

이미 신대륙에는 스페인이 1526년, 현재 조지아 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땅에 산미겔 데 고달루페 식민지를 건설했다. 1559년 서부 플로리다에 스페인이 건설한 펜서콜라 식민지를 건설, 노스캐롤라이나 내륙에 1567년 건설한 산후안 요새는 18개월 만에 그 땅의 인디언들에게 파괴되었다. 1570년에 설

립되어 이듬해에는 실패했던 아하칸 미션은 이후 버지니아로 불리게 되었다.

'최초의 영국 식민지'가 미국에 건설된 것은 메이플라워의 도착보다 13년이나 앞선 1607년이다. 그러나 1622년 3월, 인디언은 제임스타운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무려 347명의 정착민이 학살당한다. 이로써 신대륙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1624년, 네덜란드인들이 현재의 맨해튼 근처에 상륙했다. 네덜란드인들은 제임스타운의 영국인들처럼 인디언을 교육하려 하지 않고 돈을 주어 이들의 땅을 사들였다.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들여와 새로운 땅의 개간을 맡겼다. 뉴욕의 맨 처 음 이름은 이 네덜란드인들이 붙인 '뉴암스테르담'이었다. 뒤 이어 1627년 퀘벡에 프랑스인들이 진출해 프랑스 식민지를 건설했다.

2)청교도들의 신대륙 정착과 오해
1620년 플리머스에 도착한 메이플라워호의 정착민들,

즉 첫 청교도 102명의 이주를 시작으로 1630년에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북쪽에 있는 한 지점에 도착하여 매사추세츠 베이 영국의 식민지를 설립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미국이주 영국인들이 다 참 신앙의 청교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632년도에는 영국 가톨릭교도들이 이민을 시작하여 메릴랜드에 정착하고, 1640년경에는 약 2만여명의 영국계 이민자들이 새로이 형성된 뉴잉글랜드에 거

주하게 된다. 미국 신대륙 뉴잉글랜드에는 매우 정치적이고, 제국주의자들과 야합, 야망에 불타는 육의 사람들 즉, 청교도 정신과 신앙이 희박한 자들도 많이 정착해 있었다. 그 당시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신정(神政, Theocracy) 정치체제를 소망했지만, 뉴잉글랜드는 엄연히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이었다.

그러나 청교도 이주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을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성도의 자격으로 도덕적 무흠, 신앙의 고백, 회심 체험을 요구하였고, 그들에게만 참정권을 주어 다스리게 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1682년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자치권이 영국왕실에게 취소되면서 청교도의 '언덕 위의 도시' 사상은 대 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이것이 청교도 미주 이주 100년도 채 안 되어서 완전 세속화(世俗化, secularization), 타락(墮落)을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교도 지도자들이 뉴잉글랜드에 "거룩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헌신하고 있었지만 거의 시초부터 세속화가 나타났고 개인적인 청교도 경건생활에 주목할 만한 성공들이 존재했던 반면에 전체적인 사회는 이 목표가 빛나고 있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는 타락을 슬퍼하고 있었다. 미국혁명 시기까지 청교도주의는 그 신앙적 뿌리들과는 크게 구별되는 세속화된 형태로 잔존했다. 완전무결한 청교도 성경관과 세계관 강조는 초기 과거의 일이 되었다"라고 알렌 카튼(Allen Carden) 주장했다.

kimjoyh@gmail.com



미국 이주 영국인 모두가 다 참 신앙의 청교도 아니야 청교도 '언덕 위의 도시' 사상은 이주 100년 만에 세속화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택 봉쇄령 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 12월 발령했던 지역별 자택 봉쇄령을 해제한다고 지난 25일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 전역에서는 예배당의 야외예배가 허용되고 비즈니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내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식당들도 야외 패티오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리저널 스테이 앳 홈' 행정 명령을 해제하고, 다시 4단계로 이뤄진 색깔별 영업재개 등급 시스템(Colored Tier System)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1단계 퍼플, 2단계 레드, 3단계 오렌지, 4단계 옐로로

구분해 각 카운티 별로 위험 정도를 알리고 대응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LA와 오렌지를 포함한 주내 대부분의 카운티가 여전히 4단계 중 가장 위험한 '퍼플' 단계에 속하는데, '퍼플' 단계에선 광역 봉쇄령 때와 달리 식당 야외 영업, 네일샵과 미용실 등의 제한적 실내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지사는 밝혔다.

LA 카운티 정부도 주정부의 결정을 따라 '퍼플' 규정에 따른 일부 비즈니스 영업을 허용했다. LA 카운티 정부 발표에 따르면 퍼스널 케어(네일샵, 미용실, 이발소 등) 업소들과 샵핑 및 샵핑센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일부 소매업

체 등은 수용인원의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 헬스장과 피트니스,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등은 야외 시설 운영이 허용됐고, 교회 등 종교 서비스 시설도 야외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패밀리 엔터테인먼트센터, 카드룸, 미니어처 골프 등의 경우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한 상태에서 야외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 사적 모임은 3개 가구, 총 15명까지 야외에서만 허용되며, 호텔과 모텔은 그동안 금지됐던 관광객 및 일반 손님의 투숙도 허용된다. 식당 등 음식점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 제공은 LA 카운티의 경우 29일부터 허용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하나님을 아는 교회되라!

덴버 할렐루야교회 입당감사예배

덴버 할렐루야교회(담임 김창훈 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2시에 입당감사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입당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예배했다.

예배는 김창훈 목사 사회로 김병수 목사(믿음장로교회)가 기도했으며 덴버신학교의 한국어부 정성욱 교수가 '덴버 할렐루야교회'를 위한 기도(렘1:15-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위한 기도였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과 덴버 할렐루야교회를 위한 기도

이기도 하다"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4가지를 기도했다. 첫째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실 때 가능하다. 스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스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제자로서 그런 것을 함께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스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도록 기도했다"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덴버교역자회 회장인 주할 목사(그리스도중앙감리교회 목사)와 김교철 목사(세계선교교회), (11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이민자보호교회 전국 심포지엄

뉴욕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후원하는 '이민자 보호 교회'가 4주년을 맞아 '전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함께 걸어 온 길, 함께 가야 할 길" 주제로 일시는 2월 4일(목) 저녁 7시(동부시간) 줌으로 열리며 예배설교는 이태후 선교사(필라델피아 흑인민선교), 심포지엄은 1)김종대 대표('이보교의 신앙고백과 비전') 2)주디장 변호사('이보교의 지난 활동과 전망') 3)손태환 목사('이보교&교회혁신의 가능성')가 맡는다. 회의 ID 838 1316 6849, 암호 392766.

▲문의: (718)309-6980 조원태 목사, (312)985-6050 손태환 목사

글로벌한인여목연 제 5회기 이취임식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연합회(회장 안경순 목사) 제 5회기 회장 이취임식이 2월 11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 가나안입성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김희숙 목사가 5대 회장에 취임한다.

▲문의: (718)962-5060

IT 강좌

네이버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를 개설한다(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준비반). 라우터(Router)와 스위치(Switch) 등을 사용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능력과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된다. Computer Networking 입문, IT 관련 직업을 위한 자격증, 대학생들도 환영한다. 오리엔테이션은 2월 6일(토) 오전 10시(동부시간), 3월 27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Webex를 통한 온라인 강좌로 등록자에 한해 링크를 보내준다(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20명, 수강료는 50달러.

▲문의: (201)461-0909 / www.neighborplus.org

2월 10일(수) 오후 7시30분 온라인으로

뉴욕가정상담소 제 32회 기금모금 연례만찬

뉴욕가정상담소(이사장 임에스터, 소장 이지혜) 제 32회 기금모금 연례만찬이 2월 10일(수) 오후 7시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작년 제 31회 연례만찬은 코비드로 취소된 바 있다. 이날 행사의 수상자들은 Vision-In-Action Award 김도우(미국명 Dow Kim), Living Our Values (LOV) Award 화가 김원숙과 남편 토머스(의료기기회사 멕트라 랩스(Mectra Labs) 대표), Community Impact Award, 한인커뮤니티재단(KACF), 그리고 Philanthropy-In-Action Award YT Hwang 패밀리에 있다.

이날 사회는 지난 15여 년 연례만찬의 진행을 맡아온 앵커인 비비안 리가 맡았으며 호돌이 방과후학교 학생들도 특별 출연한다. 또한 모여서 하는 저녁식사는 없지만 윤혜운대걸비

와 하나막걸리와 협조해 후원자들에게 고기정식과 수제막걸리가 배달된다.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브옥션과 친정 "Raise Your Hand" 파트는 Christie's Auction House 전 회장 Brook Hazelton이 경매인으로 진행을 맡는다.

매년 연례만찬으로 모여진 기금은 가정상담소의 연간 운영비 30% 정도를 차지해 연간 2,500명의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티켓은 한사람 당 100달러이며 해당 웹사이트 www.kafscgala.info에서 예매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로는 Caroline Kang(gala@kafsc.org)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동부개혁장신 개강부흥회가 폭설로 인해 줌으로 진행됐다. 강사 이용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 살라"

동부개혁장신 개강부흥회 갖고 2021년 봄학기 시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박사)가 지난 2월 1일부터 이용걸 목사를 강사로 사흘간 개강부흥회를 갖고 2021년 봄학기 수업을 시작했다.

폭설로 인해 줌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날 부흥회는 저녁 8시 총무처장 이종원 목사 인도로 기도 동문회장 장규준 목사, 성경봉독 문명숙 학우, 말씀선포 이용걸 목사, 광고 학감 허윤준 목사, 축도 이용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쓰임 받는 삶"(행21:15-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담임목회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재적인 조언을 전했다. 이 목사는 "먼저 부활신앙을 갖고 인간관계를 바로 가지라"고 조언하며 "목회자는 설교보다 사랑으로 목회하며 세상 성공의 비결도 좋

은 인간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카네기의 ①남을 비판하지 말라 ②칭찬을 많이 하라 ③용서를 잘하라 등을 소개했다.

또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섬김으로 하라"며 "하나님의 일은 적은 것이라도 다 기억된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둘째 날 역시 줌으로 진행했으며 이용걸 목사는 "믿음의 삶"(렘18: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셋째 날은 퀸즈장로교회 수요예배와 함께 했다.

한편 동부개혁장신 2021년 봄학기에는 목회학석사 2명 신학사 2명 등 총 4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부 1월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회장 유상열 목사 등 임원개선 및 정관수정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부 1월 정기예배 및 정기총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부(회장 권캐더린 목사, 이하 기아대책)가 지난 1월 27일 오전 10시30분 뉴욕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권캐더린 목사)에서 1월 정기예배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신입회장에 유상열 목사가 선출됐다.

회장 권캐더린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총회는 사역보고 박이스라엘 목사(사무총장), 감

사보고 박진하 목사, 재정보고 권캐더린 목사(회계), 정관개정, 임원선출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회기는 팬데믹으로 3월부터 3개월간 월례회를 열지 못했으며 6월부터 재개하고 11월에는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날 행사도 열었다. 아동결연도 113명으로 줄지 않았다.

이날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의 기도요청과 과테말라 태양열 전기공사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고했다.

재정은 △아동결연은 수입 38,668달러, 지출 37,668달러, 잔액 1,000달러로 보고했다. △일반회비는 수입 24,391달러, 지출 17,201달러, 잔액 7,189달러로 보고했다.

2009년 재정하고 2019년 12월 1차 수정한 정관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사항은 △제2장 제8조(의무) ④회장에 선출된 자는 본 기구에 1천불을 후원해야 한다는 추가시켰다. 이 사항은 그동안 관례로 진행돼 온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제3장 제13조 ①회장, 사무총장 및 감사는 본 기구를 3년 이상 섬긴 자로만 선출한다. 또 △제 14조 임기는 회장(또는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또는 이사장)를 삭제했다.

△정기총회 시기를 11월에서 1월로 바꿔 회계연도 시작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수정했다. 이사회 임기는 제한을 없앴다(제5장 제19조).

이어진 임원선출에서는 권캐더린 회장의 연임과 유상열 목사 회장 추진을 놓고 투표한 결과 유상열 목사가 의결에 선출됐다. 이날 새 임원으로 △감사 전희수 목사 △회계 박진하 목사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가 선임됐다.



AG 한인총회 동북부지방회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본기에 충실 하라!"

AG 한인총회 동북부지방회 신년하례 감사예배

하나님의성회(AG) 한인총회 동북부지방회 신년하례 감사예배가 1월 26일 오전 뉴욕에 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지방회장 이성달 목사와 임원들의 찬양과 경배 후 통성기도에 이어 특송 조공자 전도사, 설교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광고 유상열 목사, 축도 김명옥 목사(총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 후에는 식사와 함께 선물이 준비되었다.

한국총회 총회장 김명옥 목사는 팬데믹으로 지난해에도 총회를 열지 못했는데 올해도 예정된 4월 총회는 어려운 것

같다며, 2월에 열리는 실행위원회를 통해 8월 중순 정기총회 개최 건을 다루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김명옥 총회장은 지정 선교헌금을 권순원 목사의 아이티 선교를 위해 전달했다.

김 총회장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교회가 총회에 요청하면 돕고 있다"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귀한 모습이 보이를 바란다"고 했다.

지방회도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교회를 이진하는 강하나 목사에게 격려를 전달했으며, 지원을 요청한 선교사에게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해 뉴저지로 교회를 이전한 이광희 목사와 이미선 목사 부부가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

허연행 목사는 "기본기의 중요성"(출40:33-3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난 11월 중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돼 5일 동안 입원한 경험을 나누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산자의 책임감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종말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환자들의 아픔을 몸으로 공감할 수 있었으며, 병원에서 일하는 일선 의료진들 수고를 알았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운동뿐 아니라 신앙생활이나 목회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뚫고 나가는 비법을 찾지만 지금이야말로 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 목사는 "성경이 철길이라면 성령님은 기차"라며 "능력목회"를 강조하고 "말씀과 성령의 기본 원칙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에 충실하실 것이다. 2021년 새해를 기본기에 충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하나님이 이사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사43:19)처럼 광야에 길을 사막에 물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합심기도는 △기아대책 회장 및 회원들을 위해 △결연 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김영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제목으로 통성기도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부의 주사역인 아동후원은 월 30달러로 1명을 후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breadngospel.org)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프라미스교회 고성민 목사와 박희숙 안수집사가 나눔의집을 방문해 박성원 목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뉴욕나눔의집 후원금 줄이어

한인노숙인 쉼터구입을 추진 중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후원금이 계속 담지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에는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가 1만 달러를 전달했다.

또 25일에는 장원삼 뉴욕총영사가 뉴욕나눔의집을 방문해 쉼터 구입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며칠 전에는 최재복 장로(뉴욕한인제일교회)가 후원금 1,000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국 30주년 미주복음방송 릴레이 특집방송 '나눔 온 캠페인' 사역도 펼쳐

개국 30주년을 맞고 있는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지난 30주년을 뒤돌아보며 30년 역사의 현장에 함께 했던 미주복음방송 리더들을 초청, 향후 30년을 기대하고 소망을 나누는 특집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 특집 방송에는 사장 이영선 목사의 비전을 비롯해 송정명 목사, 박신욱 목사, 박희민 목사, 김영길 목사, 한기홍 목사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또한 '나눔 온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는 가운데, LA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각 1,000달러씩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장 이영선 목사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학 2:8)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이번 GBC 미주복음방송의 '나눔 온 캠페인'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동참하신 많은 형제자매들의 크고 작은 정성들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며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 내길 소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오는 3월 개국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하늘소망교회 선교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김덕수목사

"하나님자녀 정체성 갖고 승리의 삶 살자" 하늘소망교회 선교주일 예배, 박지만 선교사 설교

하늘소망교회(담임 김덕수 목사)는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헌신주일로 정하고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초청해 말씀을 나눈다.

1월 31일 오전 11시 김덕수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선교헌신 주일예배는 흥에스터 전도사가 기도한 뒤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지만 선교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단1:1-2)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지만 선교사는 다니엘의 믿음을 제시하며 "다니엘서를 통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메시지가운데 다니엘서 전체를 봐야한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결국 느브갓네살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무밭 사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을 밝히 알려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된 나의 정체성을 따라, 우리의 삶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러할 때에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다.

박지만 선교사는 2005년부터 멕시코 성경묵상 사역과 에스라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오고 있다.

하늘소망교회는 올해 '존귀한 일을 하는 존귀한 교회'(사 32:8)를 표어로 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에 올인하고 있다.

2월과 3월 선교주일에는 남사현 선교사(스페인) 하도영(아프리카) 선교사가 각각 말씀을 전한다.

(이성자 기자)



미주복음방송이 '나눔 온 캠페인' 사역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왼쪽은 이영선 사장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 주제 재미고신총회 선교위원회, EU선교포럼 개최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총회장 이신구 목사, 이하 재미고신총회) 선교위원회(선교위원장 박석현 목사)는 학교가 지향하는 선교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EU 선교 포럼을 열었다.

Zoom 영상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한기원 선교학 교수의 사회와 재미고신총회 부총회장 정지호 목사의 기도로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이란 주제로 총회 선교위원장 박석현 박사(산호세 한인장로교회)의 주제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박석현 박사는 발표에서 "이민인가가 줄고 있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실제 재미한인 디아스포라의 숫자는 2019년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중 80%가 미국에 집중돼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으로 7가지지를 제시했다.

7가지 선교비전은 △많은 다민족이 사는 미국이 바로 선교 사역지다. 미국 내 소수민족을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타 종교 속에서 찾을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문화 속에서의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디지털 네트워크와 인격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교에는 각계전문가가 아니라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으는 협력선교가 필요하다. △역 선교적 사명으로 미국 복음화와 미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가 진

행됐다.

한국 KPM(고신총회세계선교회) 연구국장 권효상 선교사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선교사의 경험 공유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윤대식 목사(새비전교회)는 상설기구 설치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민석 목사(클리브랜드 한미장로교회)가 질문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에 대해 힘을 모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이 나왔으며, 이기성 목사(델라웨어 사랑의교회)는 패널 구성에 대해 "다양한 신학적 특성을 가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동질성 있는 신학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 EU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운태 목사(홍콩엘림교회)는 교회에서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열어서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김인환 목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자연히 선교적인 교회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총장은 "발제자가 말한 기독교의 독특성이란 바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교단이나 하나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비전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EU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총장은 또 "발제자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진단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EU를 향한 진단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EU를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재미 고신총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니박 부시장 소방국위원 선임 프레드정 시의원 주택제정위원에

부에나팍 서니 박(Sunny Park) 부시장이 지난 12일 오렌지카운티 소방국 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직을 맡은 박 부시장은 위원회에서 부에나팍 시를 대표하게 된다. 오렌지카운티 34개 도시가운데 소방국 서비스를 받는 도시는 총 23곳이 있다.

플러튼 1지구 프레드 정 시의

원은 지난 14일 오렌지카운티 주택제정신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2019년에 설립된 주택제정신탁위원회는 홈리스와 극빈층 주민 주거 시설 건립 기금 조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2025년까지 2700유닛의 정부 보조 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하나님을 아는 교회되라!

(9면에서 계속)

그리고 팀 데스타 목사(에디스키단 복음주의교회)가 축사했으며 권병오 장로가 권면했다. 이날 예배는 김명덕 목사(덴버할렐루야교회) 축도로 마쳤다.

덴버 할렐루야교회는 작년 7

월경에 오로라의 챔버스와 에반스 길에 있는 에티오피아인 목사인 팀 데스타 목사가 사역하던 아디스키단 복음주의교회로 교회이전을 결정하고 진행해왔다.

교회주소는 15150 E. Evans Ave. Aurora, CO 80014이며 전화는 (720)226-8113.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봄학기 접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는 대학과정으로 △신학(BA) △상담학(BACC), 대학원 과정으로는 △기독교상담학(MACC) △기독교교육학(MACE) △선교학(MAICS) △목회(M.Div) 학위과정 등이 있으며, 박사과정으로는 선교학(D. Miss) 학위와 교차문화학(PhD)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8개 학위과정은 미 연방교육 USDE가 인정하는 학위과정으로 ABHE, TRACS, ATS의 정회원으로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21년 봄학기 입학원서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gmu.edu)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강의 지원으로 랩탑 임대서비스도 시행했다.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mu.edu

월드미션대학교 2021 봄학기 신입생 모집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현재 모집 중에 있다. 학사과정으로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RN to BSN, 석사과정으로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 박사과정으로는 △교회음악학 △목회학이 있다. 상담학과는 좋은 교수진과 부설상담소를 보유하고 기독교신학에 바탕을 둔 기독교상담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기독교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졸업 후에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NGO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예배학과의 세계적인 예배사역자 타미 워커, 그렉 슈어, 에드윈 윌밍턴, 레스터 루스 등 최고의 교수진을 강사로 예배찬양 인도의 실재를 훈련한다. 다양한 장학혜택도 제공한다.

▲문의: (213)388-1000, (213)388-1000

Seed선교회 소셜연금 Zoom 세미나

시드선교회(국제대표 박신욱목사)는 2월 5일(금) 소셜연금 줌 세미나를 개최하며 New York Life Executive Partner인 최제인 씨가 강사로 선다. 강의내용은 미국연금 프로그램 소개, 수령 연도에 따른 수령액수 증가, 은퇴 후 생계비 조정, 은퇴연금의 수령 사례, 은퇴연금 신청기간, 배우자혜택 등 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게 된다. 서부시간 오후 4시, 동부 오후 7시.

▲문의: (562)926-4700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통큰통독 일독학교' 개강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대표 주해홍 목사) 통큰통독 2021 상반기 미주 16주과정이 2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린다. 일독학교는 90일 동안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며 일독을 하게 되며 모든 성도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화요일 오전반(2월9일-5월29일) 강사 남승우 목사(seungwoonam@hotmail.com), 수요일 저녁반(2월10일-5월26일) 강사 정소진 전도사(slowgin1010@gmail.com), 목요일 오전반(2월11일-5월27일) 강사 김민섭 목사(gutenmsk@gmail.com), 토요일 오전반(2월13일-5월29일) 강사 정성희 전도사(schung212@yahoo.com). 강의는 온라인 라이브 양방향 화상강의이며 등록비는 100달러.

▲문의: 각 강사에게 문의

LA시 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 지원

세금보고 시즌을 앞둔 가운데 LA시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27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등 비영리기관 손을 잡고 웹사이트(www.freetaxprepla.com)와 지역 사무소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한국어와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하며, 지원 자격은 소득이 5만 6000달러 미만인 LA 주민이다.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예약 및 지역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www.freetaxprepla.com

플타임 교역자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덴버한인장로교회(담임 이형만 목사)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할 플타임 교역자를 청빙한다. 담당사역은 찬양과 행정이며 지원 자격은 △정규 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M. Div) △찬양사역과 교회 사무행정 경험자 우대 △거주 및 취업에 걸려 사유가 없는 자(필요시 종교비서 제공)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자기소개서(본인소개 및 성장배경, 사역경험, 신앙고백 및 소망)다. 제출마감은 2월 28일이며 이메일로만 문의/접수(jundoman@gmail.com) 받는다.

▲문의: jundoman@gmail.com

교육 및 행정 사역자 청빙

LA 토렌스 지역에 있는 미주서부장로교회(wpc.org)는 유초등부, 중고등부/EM청년부 중 한개 부서를 담당할 교육 사역자(파트타임)와 행정 및 방송 사역, 성경공부 지도(한국어) 중 한 부서 맡아 교육목양도 병행할 수 있는 행정사역자(전임 또는 준전임)를 청빙한다. 교육사역자는 정규신학교(M.Div 또는 기독교 교육 전공) 재학 또는 졸업자로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취업에 걸려 사유가 없는 자이며 행정사역자는 정규 신학교(M.Div) 재학/졸업자 또는 기독교교육(M.A) 전공자로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취업에 걸려 사유가 없는 자. 서류접수는 2월 14일(주일)까지.

▲문의: jkimwpc@outlook.com

머슴교회세미나

메릴랜드 빌립보교회에서 시작한 '머슴교회 세미나'를 새롭게 시작한 '만사 인스티튜트'가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고민하는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을 세미나에 초청하고 있다.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머슴교회가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자료들을 오병이어를 나누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주최 측은 밝히고 있다.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5주간 동안(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미서부시간)) 열리는 이 세미나 강사는 송영선 목사(빌립보교회 원로, 파송선교사, www.mansain.org)로 등록비는 50달러, 참가문의는 mcc3694@yahoo.com으로 하면 된다.

▲문의: (714)932-3352 이홍록 목사

“대면예배 통한 감염 없었다”

정부 형평성 논란에 입장 발표...식사·소모임이 문제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종교시설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예배 이후 식사, 폐쇄적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져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된다”면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은 일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와 관련해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면서 “마스크 착용

용, 손 씻기 등 사전 방역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제한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수의 10%, 2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이뤄지고 있다.

손 반장은 “대면예배 자체를 통한 확산이 거의 없었고 엄격한 예방수칙을 통해 예배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면예배 이후 식사, 폐쇄적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지면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된다. 소모임은 2단계, 2.5단계와 관계없이 일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교회 대면예배만 허용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 간 접촉에서 가족 접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끼리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내린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두 차례 토론회도 예정하고 있다.

손 반장은 “5단계 재편 이후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총평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대책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집합 금지 엄중화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과 양육, 선교리더들에게 먼저 들겠다”

강대홍 신임 사무총장 KWMA 새 표준 포부 밝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 강대홍 신임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동작구 본부 사무실에서 취임 간담회를 갖고 ‘교회와 기관, 선교사 간 소통’과 ‘차세대 리더 육성’을 강조했다.

강 총장은 “KWMA는 선교를 직접 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교단 선교부, 전문 선교단체를 섬기는 기관”이라며 “회원 단체들이 사역을 잘하도록 지원하고 도우며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언을 열었다.

강 총장은 1987년부터 태국 등 선교지에서 축적한 현장 노하우를 접목해 KWMA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들을 밝혔다. 우선 교회와 기관, 선교사의 선교적 함의다. 강 총장은 “무슬림을 상대하는 선교사만 해도 국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각자의 지역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각각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리더, 현장 선교사, 선교학 교수가 모여서 소통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선교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KWMA가 우선순위로 진행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2004년부터 선교학자와 교단, 선교단체 책임자들이 참여해 실용적인 현장 선교전략을 모색하는 방목포럼을 운영했다.

젊은 리더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강 총장은 “한국교회가 보수적인 건 나를 포함해 리더의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며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별 리더를 세우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에 KWMA의 역할도 이야기했다. 강 총장이

주목한 건 국내 거주 외국인 사역이다. 그는 “선교라면 해외로 나가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국경이 폐쇄되면서 나가지 못하게 됐다. 반대로 경제 여건이 좋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났고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존중받아야 할 선교사는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고 설명했다. 강 총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내에서 다문화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명칭을 ‘국내 선교사’에서 ‘언어권 선교사’로 변경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국내로 돌아온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KWMA 정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 총장은 “이번에 사무총장 선거를 하면서 변호사의 해석에 따라 KWMA가 흔들리는 걸 봤다”며 “29일 정관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거버넌스 태스크포스’가 모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번에 사무총장 선거를 하면서 변호사의 해석에 따라 KWMA가 흔들리는 걸 봤다”며 “29일 정관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거버넌스 태스크포스’가 모임 예정”이라고 밝혔다.

“IEM 국제학교 사태 송구...”

한교총, 회원교단에 공문 M선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준현 목사)은 26일 대전 IEM 국제학교와 지방 기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회원 교단과 교회에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교총은 이날 회원 교단에 공문을 보내 “대전 IEM 국제학교와 기도원 등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지고 있음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3차 유행단계를 낮추기 위해 모든 국민이 불평함을 감내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교총은 이어 관련 시설 책

임자에게 즉시 사과와 함께 방역 당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함으로써 상황 악화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시설과 관계된 교단과 교회에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빠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독려해 달라고 했다.

한교총은 “교인 관련 시설들을 통한 확산은 그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찾는 교인들이 각각 모든 교회와 연결된 만큼 결국 모든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한국교회 모두를 위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와 교회 박 집

합 활동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도 요청했다.

IEM 국제학교가 속한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 선교사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양성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일단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 시청 등 관련된 기관들에 모든 상황을 알리고 방침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M선교회가 지역교회와 협력사역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TCS국제학교 이름을 갖고 다음세대를 양성하고 있는 교회들에 이번 상황으로 어려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어떤 질책과 비판이든 달게 받고 필요한 사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으려면...

하이패밀리, ‘이동학대예방 부모시스템’ 제안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제2의 정인이 사건 방지를 위해 ‘이동학대예방 부모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후에 수습하는 2차 개입이 아닌 사건 전에 가정 회복을 위한 1차 개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향숙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는 2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법이나 제도 마련 쪽으로 가고 있다”며 “물론 법이나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방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

이들이 죽어 가기 전에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동학대예방을 위해 ‘부모치유-부모회복-부모교육-부모훈련-부부상담’ 5단계로 구성된 부모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치유는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부모회복은 부모의 스트레스 수위를 낮추는 과정이고, 부모교육은 무지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는 부모들이 부모역할 전문가가 되도록 돕는 과정이다. 부모훈련은 분노를 조절하는 과정, 마

지막으로 부부상담은 부부관계 리모델링을 통해 오염된 양육환경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김 대표는 “아동학대가 바깥으로 노출됐을 땐 아이가 이미 만신창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죽지 않도록 살려내는 게 예방이 될까. 그렇게 되기 전에 부모에게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를 일선에서 막아낼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부모”라며 “법이 개입하기 전에, 부모시스템을 통해 부모를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부모교육 정도로는 안 된다”며 “어찌다 개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행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포교 활동 우려” 건축반대

이단 ‘하나님의교회’ 대전·고양서 건물 신축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예 안상홍총연합회)가 최근 대전과 경기도 고양 등에 건물 신축에 나서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 서구 관저동 관저터삼 아파트 인근 종교부지엔 지난 4일 하나님의교회 건물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건축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유류지로 있던 부지에 펜스가 세워지고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축 반대에 나섰다.

임지혜 관저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한동안 텃밭이었던 곳에 갑자기 사이버·이단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니 많은 주민이 화가 나 있다”면서 “하나님의교회가 벌써 아이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까지 벌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조만간 서구청과 건축 현장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저지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민과 공문화 과정 없이 종교부지라는 이유로, 학교가 밀집한 신도심에 이단교 건축을 허가해 준 서구청은 여론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단교회 건축허가 막아주세요’란 제목으로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현재 84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도 고양 덕양구 오금동 주민들도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 들어설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 입주주민이 모인 한 카페에는 “오금초등학교 인근에 사이버교회가 건축 중”이라며 “아이들과 주부들에게 집오하게 포교 활동하며, 가정 파탄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사이버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많은 입주주민이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을 막을 법적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

은 건축 관련 법규와 요건에 맞게 처리된 행위여서 구청 쪽에서 거부할 사안이 안 된다”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별다른 대책이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고양시청 관계자도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만큼 민원만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다만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향후 대처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 장진용식 목사는 “하나님의교회는 신천지와 다르게 집집이 찾아가 포교에 나서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더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도 “하나님과 원주에선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건축이 불허되고 무산된 전례가 있다”면서 “지역 교회는 주민들과 연합해 이단 대한 노하우를 나누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며 주민들만의 싸움에서 오는 한계를 함께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은교회에 날개를’ 목회성장지원 플랫폼

교회개혁 등 지속가능한 목회 돕는 ‘센트’ 곧 출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대단한 흥인이 아닙니다. 불빛이든 땀에 맞는 공인데, 어떻게 든 포기하지 않고 1루에 나가는 일입니다. 센트는 작은교회도 1루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발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목회자들에게 센트가 비빌 언덕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 출범을 앞둔 사단법인 센트(이사장 김종일 목사)의 이사인 주빌리목회지원센터 대표 현창환 목사는 센트의 출범 취지를 이같이 소개했다. 센트는 개척교회와 작은교회, 목회자와 선교단체 등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종교법인이다.

서울 송파구 함께심는교회(박종현 목사)에서 25일 센트의 이사인 현 목사와 박종현 목사, 김대진 하늘누리교회 목사를 만났다.

센트의 모토는 ‘지속가능한 목회와 선교를 위한 교회와 목회자의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개별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해 왔거나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목회자들이 2019년 11월 센트의 발기인으로 모여 창립선언문을 만들었다. 이후 1년여 준비 끝에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박종현 목사는 “교단에서 여러 지원을 하지만, 독립교단이거나 지원이 부족한 교단에서는 목회자들이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목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범교단 네트워크를 형성해 목회자들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경험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센트 이사장과 실행위원 대부분은 자진사역을 하거나 사회복지, 출판,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목회자들이다. 이사장 김종일 목사는 개척을 돕는 교회개혁학교 숲의 대표코치다. 박 목사는 기독교 SNS 채널 ‘진도사닷컴’의 편집장이자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누리’를 운영한다. 김 목사는 싱크와이즈 교육목회연구소 대표로서 세대통합 교육 사역을 해왔다. 현 목사의 주빌리목회지원센터는 종교인 소득신고 등 세무 지원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목회자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사와 실행위원의 달란트는 센트의 다양한 사역과 맞닿아 있다. 센트는 이사와 실행위원, 회원 목회자의 사역과 연계해 개척이나 교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한다.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세례교인 숫자 등 교단이 제시한 일부 조건에 맞지 않거나 독립교단에서 법인격을 받지 못한 교회들에 법인격도 부여할 수 있다. 박 목사는 “교회지만 법적·행정적으론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법인격이 없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돼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단과의 관계에 있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박 목사는 “센트는 새로운 교단이 아니라 공교회적 차원에서 지역 교회를 돕고 건강한 생태계를 함께 가꿔나가고 싶은 것”이라

며 “교단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교단의 법인격을 받는 등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개척을 시작하거나 개척 후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현 목사는 “임대차계약서부터 교회 인테리어, 세무행정 등 현장에는 사명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며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센트에 가면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의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목회자들은 소명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인데, 대부분 목회자가 모교회나 지원 없이 혼자 세상에 나와 바다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하는 게 현실”이라며 “생존에 휩쓸려 상상력을 펴지도 못하고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목회자들을 돕고 격려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관자’ 남성들이 깨어나야 생명이 산다

프로라이프남성연대, ‘남성프로라이프운동, 어디로...’ 세미나

생명존중을 기치로 하는 프로라이프운동에 남성들도 적극 동참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었다.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프로라이프 남성연대가 설립돼 남성들도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

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임신·출산 문제를 여성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남성이 함께 책임지는 사회가 된다면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이상원 총신대교수가 ‘생명운동에 있어서 남성의 성경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녀 출산과 낙태의 책임을 임신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물어선 안 된다”면서 “성경적 결혼관은 결혼관계에서 남자에게 지도적 위치를 부

여하는 만큼 오히려 남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녀는 인간이라는 본질에서는 평등하나 성향, 뇌 구조, 성적 특성, 생식과 자녀 양육의 특성에서 차별화된 다”며 “서로가 지닌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상호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 과정을 완성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카도쉬아카데미 교육위원장 김동진 일산하나교회 목사는 미국 프로라이프 역사를 되짚어 보며 한국 프로라이프 남성 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김 목사는 “미국 남성들의 활발한 참여는 프로라이프운동이 남녀 모두

의 책무임을 잘 보여준다”면서 “한국도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 남성들에게 태아 생명의 제공자이자 보호자이며, 생명 가치 수호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에 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실질적 낙태율 감소로 이어지도록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창화 전국가족임양연대 대표는 ‘임양운동과 남성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교회 내 남성들부터 현역중심적 가족관에서 벗어나 고아까지도 품는 기독교적 가족관으로 임양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33)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영적 처방: 6. 뒤틀린 논리에 대항하기

절망의 영으로부터 파괴적 생각과 음성을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무력감, 가망 없음, 실망, 슬픔, 절망, 혼동된 마음과 영적 억압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실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 용서, 치유함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평안보다 혼란으로 가득하다면 뒤틀린 생각과 음성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주님은 성령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만큼 당신을 도울 능력이 있으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

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4:4).

베드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도 동 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라”(벧전5:7-9).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픔을 주는 음성에 대항할 필

요가 있다. 치유함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포기 하지 말고 따라야 하는 과정이다.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기도 하며 주님께 지혜와 힘을 달라고 간구하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고 영적인 고통에서 놓여나게 될 때, 다음에 제시하는 치유를 위한 연습을 따라 해보라.

회고: 마음속에 파괴적, 비평적, 비판적 음성을 들을 때, 그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숙고해 보고 찾아내라. 만약 그것이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성령님의 밝히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마 비탄의 영일 것이다. 마귀는 당신을 비난해서 당신이 나쁘다는 생각과 우울함을 느끼도록 만든다. 당신이 듣는 음성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고 비평적일 수 있다. 만약 그 파괴적이고 무심하며 비평적인 음성을 받아들여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죄악에 빠질 수 있다. 죄의 삶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그러한 격정을 갖기 시작했는지 찾아 보라. 많은 경우 같은 마귀와 싸우는 것으로 이를 성경 말씀을 대항하며 죄악 된 욕망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한다. “내가 분노, 책망, 근심, 고통, 비탄,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죄를 정당화 시킨다. 이러한 감정을 지니고 있을 때, 영적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뒤틀린 생각이라는 씨를 심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

대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음성과 싸울 수 있는 성경말씀을 찾아라. 하나님과 자신, 그

놓으려는 너의 어리석은 시도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네가 그렇게 방해하려 할수록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마귀를 내쫓아라.

선포: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일을 축복하시므로 나는 즐겁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므로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승리를 선언하라.

근기: 아픈 생각들로 당신을 괴롭히려는 영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싸워라. 또한 마귀가 잘못된 생각이나 음성을 통해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할 때는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여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

기도: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이해력과 당신의 계시를 주세요. 성경 말씀 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천사들로 둘러싸 주시고 보호하시어 사탄의 모든 거짓말로부터 저를 지켜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분노, 책망, 근심, 고통, 비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는가? 이 감정들은 죄를 정당화 시켜... 회개하며 욕망극복법 배워야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3:13-18).

버려야 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정신이 없는 경우를 경험해봤을 것이다. 이러한 어지러운 생각들을 떨쳐 버릴 때 영적 자유를 얻고 정신이 맑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정서적이

가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며 이로써 고통을 느끼지만, 많은 경우 악한 영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꿔야 한다.

회개: 평안을 잃고, 안개가 낀 마음속에 갇힌 느낌을 갖기

리고 다른 이들과 화평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할 수 있는 법에 관한 영적 권능을 알게 하는 방향을 성경 안에서 찾아라.

대적: 만약 당신이 영적 억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

나서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일을 축복하시므로 나는 즐겁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므로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승리를 선언하라.

대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음성과 싸울 수 있는 성경말씀을 찾아라. 하나님과 자신, 그

놓으려는 너의 어리석은 시도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네가 그렇게 방해하려 할수록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마귀를 내쫓아라.

yonghui.mcdonald@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강

천지창조(창1장)

창조의 목적

1.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내가 지었고 그 내가 만들었느니라(사43:7)

2.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3.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창조의 목적이 무너진 듯 보일 수 있지만 창조 이후에 일어난 인간들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창조가 불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는 창조로서 완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를 시작으로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창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며,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모든 만물과 같이 창조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창조를 통해 성경은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며 경배할 대상(신 17:3/대하33:3.5/롬1:25)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빛을 만드심

1. 성경은 창조 전 모습을 흑암, 혼돈, 공허였음을 말합니다(2절). 그리고 그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첫째 날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3절)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4절).

2. 빛이 창조되었지만 어둠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5절).

창조-나누심으로 구분하심

1. 흑암의 상태에서 빛을 만드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은 이제 혼돈의 상태를 정리하십니다. 나누시고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2. 먼저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이라는 빈 공간을 만드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6절).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궁창의 역할은 바로 구분입니다. 섞여있던 윗물과 아랫물이 궁창으로 인해 나뉘고 구분된 것입니다(7절).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8절).

3. 그러나 아직 혼돈이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궁창으로 인해 나뉘고 구분되었지만 아랫물은 아직 나뉘지 않고 물과 물이 섞여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4.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은 아직 혼돈 가운데 있던 물과 물을 나누시고(9절)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10절). 역시 나누심으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혼돈이 이제 다 정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완성을 위한 틀이 다 만들어지므로 혼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 불

리는 물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십니다(11,12절).

창조-제자리에 두심으로 채우심

1. 이제 흑암에서 빛을 그리고 혼돈에서 나누시고 구분하여 정리하신 하나님은 나머지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채우심은 모든 것을 각자의 위치에 두시는 것입니다.

2.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분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 주변을 채우십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심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변을 채우신 것입니다(14절).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16-18절/참조 창 8:22).

하나님의 영광 위해 창조,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하나님나라 완성을 위한 시작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28절). 그리고 빛으로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다 제 자리에 두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십니다(31절).

이제 창조 역사를 그림으로 간략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창조의 내용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잘 정리해 두셔야 앞으로 이어질 ‘One Story’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명하심도(창 1:29, 9:3/레11:1-47/신14:3-21)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성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창11:27-12:1)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시고(창46:3,4) 다시 애굽에서 부르시는 그 긴 여정(출-신), 그 척박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레25:38), 그 사방이 대적으로 막힌 땅에 부르시는 그 구별하심과 제 자리에 두심

궁창이라는 빈 공간을 만드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궁창으로 말미암아 섞여있던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3.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고 구분되었지만 아직 혼돈이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아랫물은 아직 나뉘지 않고 물과 물이 섞여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은 그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이제 혼돈이 정리된 것입니다. 창조 사역의 틀이 만들어지므로 혼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두십니다.

4. 이제 하나님은 남은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제자리에 두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주변을 채우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제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창8:22).

5.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에게 빛으로 길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구분하심으로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채우심은 제자리에 두심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와 동물 모두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두셨습니다. 그와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습니다.

2.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 역할을 순종하며 감당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하고 자신들을 신의 자리에 앉힌 자들의 결말을 성경은 보여줄 것입니다(겔28:1-19/단4장).

3.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 교만한 자들(대하 26:16-23, 32:24-33)에게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며 그 징계는 궁극적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와 다시 자신의 위치에 서서 그 위치의 가치를 찾은 것이며(눅15:17-19) 그것이 바로 창조는 땅의 모든 생물을 땅에 두십니다.

4. 죄는 바로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죄의 사전적 의미가 바로 ‘과녁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 죄인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아야 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기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 자리를 회복하는 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품성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레18:3).

그래야 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시고(신 7:3) 북 이스라엘 왕으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주도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왕상 16:30,31)의 가문의 기록을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왜 그리 비참하게 끝나는지(왕상 21:21-24, 22:38/왕하9:30-37) 심지어 웃(신22:5)도 종자도 짐승도 털도 베실도 섞지 말라 하심(신22:9-11)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창조 전 모습은 흑암, 혼돈, 공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2. 하나님은 이제 혼돈의 상태를 나누시고 구분하시므로 정리하십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새를 하늘에 두시고 물의 모든 생물을 바다에 두시고서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을 땅에 두십니다.

6. 이제 빛으로 흑암을 나누시고 혼돈을 구분 정리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시작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모든 생물을 각자의 위치에 두심으로 채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창 1:11,12,21,24,25) 만드신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창 1:26,27).

7.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

성경은 창조를 통해 말합니다.

1.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시9:13-20)

다윗은 모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산 것이 모두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물리쳐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심판하시면서도 나에게서는 늘 미안할 정도로 변호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시116:1).

화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시10:1)

시10편은 9편과 계속 이어집니다. 9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면 10편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0편에서 주목할 단어 “어찌하여”는 내가 역을 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식하는 말입니다. 즉 “어찌하여” 악인들이 함부로 여호와와 이름을 떨치며 성도를 박해하는데 그냥 놔두

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시10:2-12)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들도 고통을 받을 때가 있고 악인의 박해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의 환난 때에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이미 가까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악인의 교만과 횡포를 하나님께 낱알이 고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괴롭고 너무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대항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시10:12-18)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을 예비한다”는 뜻은 “누구든지 가까이 나오는 자는 다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위로를 받고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

도를 가까이서 들으시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십니다. 히11:6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과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련을 만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시11:1-5)

4절과 5절의 “통촉하다, 감찰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뜻과 함께 “테스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테스트를 통해 연단하시고 크고 비밀한 은혜 즉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

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미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 밖으로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안내합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그 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시11:1-7)

시118:8-10.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길만이 모든 시험에 통과하는 길이요 합격하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하되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보좌에 좌정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도 성도들을 돌

보시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거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통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보옵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2)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우리의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다니엘은 참으로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다. 그의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즈음에 태어나 그는 유다의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고 나라 없는 설움을 평생 당하고 살아간 사람이다.

다니엘 1장 1-2절을 읽어보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때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유다왕 19명 중에서 비교적 성군이러 불리는 요시아왕은 철저한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사실 유다가 나라다운 체통과 위엄을 지키고 살았던 때는 바로 요시아왕 때까지였다. 그런데 기원전 605년을 기점으로 세계정세는 급변하게 되고 유다는 풍전등

합든 순간을 겪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으니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때 느부갓네살왕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명령한다(단 1:4). 소년, 즉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대략 10대 중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대략 그의 나이가 15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중학생 나이 정도에 다른 나라 포로가 되었었다는 것이고 이때부터 그가 죽었던 80대 중반의 나이까지 근 70년간을 그는 조국의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죽었다. 무슨 말인가?

다니엘은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었다. 선조들의 잘못으로 부모세대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아 부모의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다음세대에 희망가져

화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 바로 므깃도 전투에서 이집트 바로느고왕과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요시아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유다는 급속도로 쇠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애굽의 바로느고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를 애굽에 종속시키려 하지만 당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 느브갓네살(느브는 바벨론의 신인데 이말은 느브신이 그를 보호한다는 말)은 앗수르/이집트 연합군을 가케미시 전투에서 물리치고 이 여세를 몰아 당시 친 애굽정권이었던 유다를 침공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빼앗아 그의 나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 바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호사가들은 역사를 사람의 시각으로 기록하여 침략자의 용맹과 우수성을 드러내려 하는데 익숙하지만, 성경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의 사실은 바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다니엘 1:2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다시 말하면 느브갓네살이 스스로 침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유다의 침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손수 말씀하신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 바로 다시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때로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또는

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선조들이 잘못하면 그 벌을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니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단1:4).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시는 잣대이다. 우리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이렇듯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향해 흠이 없고 아름답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를 통해 일어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알았다. 모세를 낳을 때 부모님은 그 아이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다(출2:2; 히11:23).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듯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러한 가치가 계속 자라나고 발전되도록 성인세대들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성인세대들의 의무요, 책무이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라. 부모 세대가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온 결과 우리 자녀들의 환경은 어둠속에 방치되어버렸다.

학교에서는 온갖 반기독교적, 행위가 자행되고, 우리의 사회는 기독교의 핍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고통 받고 살아야 할 지금의 교육, 사회 환경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릭사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건강 길라잡이



이영익 내과전문의

족저근막염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대표적 노래인 아리랑의 가사를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발병'을 진료 중에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질환은 환자 자신도 질병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 온 40대 중반의 김 씨는 우체국에서 20년간 근무해왔다. 김 씨에게는 오랫동안 앓아온 지병이 있는데 걸을 때마다 발 뒷부분이 아파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후 침대에서 내려올 때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발바닥이 아팠고 조금 걷고 나면 통증이 줄어들었다. 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발바닥 통증이 심해서 앉아야 했다. 발바닥이 아파서 오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골프 같은 운동은 꿈꿀 수도 없었다. 김 씨는 혈압 때문에 지난 5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잘 조절되는

편이었다. 몸무게는 80킬로그램으로 과체중에 속했다. 발바닥이 아파서 거의 직장일 이외에는 운동을 못하고 있고, 담배는 일주일에 한 갑 정도 피우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김 씨는 오랫동안 무거운 우편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5년 전 발바닥이 아파서 사무직으로 전환했다. 검진 시 혈압과

발바닥 뒷부분 통증 심해

맥박 등 이학적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족저근막(발바닥)을 만질 때 심한 통증을 느꼈다. 특히 발바닥 뒷부분의 통증이 심했고, 통증은 발가락 쪽으로 타고 내려갔다. 일단 김 씨의 병력과 이학적 검사를 근거로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에 들어갔다.

족저근막염(발뒤꿈치 통증 증후군)은 발바닥 근육을 찢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이는 성인이 발의 통

증을 호소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통증은 위의 증례처럼 오래 앉아 있거나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 심한 발바닥 통증을 느끼고, 뛰거나 오래 서 있을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 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나 치수가 맞지 않는 신발을 오래 신어 발생할 수 있다. 또 김 씨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무거운 물건을 많이 운반하거나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엑스선 사진을 찍어 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료는 일차적인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과체중이 원인인 경우는 체중 조절이 필요하고 발바닥에 무리를 많이 주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나 직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발바닥 뒷부분 통증 심해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을 줄이고 발을 쉬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얼음으로 아픈 부위를 20분간 하루 4번 정도 마사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나 발바닥을 보호하는 신발도 착용해 볼 수 있다. 발 운동은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운동법을 배워 하루 2회 이상 집에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3-9388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5.복된 가정

하나님의 세상만물 창조주의 클라이맥스(절정)은 인간 창조였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가정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탄 마귀는 가장 악한 여자 하와를 유혹하여 남편 아담까지 가담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범죄케 하므로,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천국의 모형이며, 가장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할 에덴의 가정이 실락원 하게 되고, 수고와 해산의 저주를 받고 사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상 가장 모범적이고 복된 가정의 모델은 구약에서는

민네 아내가 안 믿는단지, 아내를 잘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단지,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들은 안 믿는단지, 자녀들은 잘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단지 하면 그것은 반신불수와 같은 영적 결손가정입니다. 또 종교를 가져도 어느 식구는 기독교, 어느 식구는 불교 또 어떤 식구는 천주교를 믿는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온 가족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의 호주로 모시는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2.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가정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범적이고 복된 가정의 모델 구약-욥, 신약-고넬료 모든 식구가 하나님 섬기며 예배 중시하고 성령충만

욥의 가정이며 신약에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모두 이방인인 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로마의 정예부대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군인장교로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고넬료 가정을 모델로 하여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 섬기는 가정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행10:2)라고 했습니다. 복된 가정은 무엇보다도 온 가정의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잘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제사를 무시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도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전정터에 나가 죽었고, 하나님의 법제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행10:33)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넬료 가정도 예배를 잘 드려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3.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정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행10:33)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살전2:13)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장교로서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으나 무식하고 보잘 것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그는 하나님처럼 존경했습니다. 그는 주의 종을 환영했고, 주의 종에게 순종했고, 주의 종 앞에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생각했고, 주의 종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고 은사가 임했고 세례까지 받았고 온 가정과 친구까지도 구원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4. 성령충만한 가정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행10:44-48)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성령충만을 받았고, 방언도 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 다. 이방인의 가정에 임한 최초의 성령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충만한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우리의 후손에게...

(14면에서 계속) 다니엘도 그랬다. 불행하게도 부모가 잘못해서 선조가 잘못해서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다니엘은 불행(원망)하지 않았다. 참으로 귀한 믿음을 보인 소년이었다고 이러한 믿음은 평생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놀랍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었을까?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많이 나눌 것이지만 핵심은 그가 일생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는 어린 나이에 요시아왕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직접 듣고 자라났으며,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유

다 귀족 출신이었던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받은 사람이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이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성경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는다)은 그에게 어릴 때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시켰으리라. 심판자 하나님은 그가 베벨론, 메데, 피르시아를 심판하시고 중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심을 그는 꿈으로 분명히 목도했다. 그런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진리로 각인되었기에 그는 평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유대를 심판하셨지만 결국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그는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적 환경을 물려주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행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의 믿음을 세우고 뿌리내리는 영성 프로젝트가 실시되어야 한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삶이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세계를 지배하시고 믿음을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은 체념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들이 배운 믿음을 세계 방방곡곡에 뿌리내리게 했다. 70년 후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감격에 겨운 예배를 회복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 자녀들을 영성으로 계속 교육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자. 바로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니엘이기 때문이다. hlee0414@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사랑의동산교회, 어린양 개혁교회, 빛과소금교회, 린즈장로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인 교회.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

세기엔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4)

엔도 슈사쿠의 작품 '침묵'은 종교소설로 일본에서 과거에 있었던 카톨릭의 박해, 카톨릭 신부들의 순교와 배교, 그리고 그 속에서 일본인도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본 신도들 역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배교를 택하고 영적적으로 의기소침하게 사는 이들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힘난한 종교적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지 초반부에는 1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주인공 공 로드리고의 내면 묘사를 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표현하였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독자들로 하여금 배교자 페레이라 신부가 겪는 심리를 잘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 결과 독자들로 순교자의 숭고함과 배교자의 비겁함을 번갈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적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 작품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침묵에 대해 엔도 슈사쿠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소설은 침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택할 때 하는 침묵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배교를 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침묵하는 이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어떤 침묵을 누가 어떻게 선택하게 될지라도 그것에 대해 쉽게 정죄할 수 없음을 침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이 존경하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택하게 되었을 때도 그렇고 천박하고 약삭빠르고 지독히 술을 좋아

하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순교자와 그의 피는 신앙을 지키는 숭고한 희생인 것이다. 그것은 분명 배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배교와 달리 순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순교는 결국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더 많은 결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목숨만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배교를 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순교만큼 값진 믿음의 선택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로드리고 신부가 죄 없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배교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밝아가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 앞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죽을 앞에서 죄 없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드러진 침묵의 배교이자 참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배교가 신앙을 버리는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배교의 선택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여기는 것이 아

니면 배교를 통해서 내 목숨을 건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을까?

그 질문은 사실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1900년대 초 부흥의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그 당시의 많은 이들이 순교의 자리보다 배교의 자리에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이단이 판을 치고 사회 정의가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접하면서 순교의 침묵이 아쉽게만 느껴진다. 교회가 사회의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사회 정치에 몰려 신앙의 참모습이 변질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편협하고 곡해되어져가는 현실을 보게 되면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배교의 씨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뼈아프게 회개하고 참회해야 할 교회의 아픔이 되지

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순교의 자리는 종말인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개인과 나라가 부흥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배교의 자리는 잠시 잠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종말은 그렇게 길지 않음을 보게 된다. 로드리고 신부는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에 대해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기까지 끝까지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고 기치지로의 세속화되고 배신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을 것이다.

페레이라 신부는 자신이 배교하면서 늘어놓은 궤변이 있다. 일본을 늪지대에 비유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서 복음을 목표로 비유하면서 복음이 늪지대인 일본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썩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이는 일본의 모습일지는 몰라도 로드리고 신부는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가 결국 예수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고 순교자들의 피를 부인한 것이라 보았다.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는 목숨을 구걸하고 세상과 타협한 배교로 보이는 반면 로드리고 신부의 배교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예수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모두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존재로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자살이 아닌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페레이라 신부와 로드리고 신부는 모두 배교를 택했지만 분명 다른 모습의 두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설 '침묵'은 이러한 다양한 침묵의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서 작가는 카톨릭의 전파와 교화에 반감을 가지고 배척했던 일본의 선교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선교의 역사적 배경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순교자의 영성에 대해 다시 도전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신앙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배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된다.



장려상/ “침묵”

손문식 (은혜한인교회 전도사)



하는 일본인 기치지로가 자신의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하게 될 때 비록 인간적인 실망을 드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배교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 그들을 정죄하지 못함을 보게 된다.

주인공 로드리고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을 언급하면서 “나는 배교했다... 이제 제 모든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 기치지로와 제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자신 또한 배교를 선택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자신이 배교할 당시 자신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초상화를 밝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밝아도 좋다. 밝아도 좋다. 너 희에게 밝히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침묵’이라는 소설이 다만 배교에 대해서 옹호

하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순교자와 그의 피는 신앙을 지키는 숭고한 희생인 것이다. 그것은 분명 배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배교와 달리 순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순교는 결국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더 많은 결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순교는 나약해 보이지만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탄압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자 용기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반면 배교는 때로 침묵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는 것이다. 엔도 슈사쿠는 그의 작품 '침묵'을 통해 각자 순교의 자리에 설 수도, 배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편, 배교의 자리에 서게


나라 그분의 용서를 깊이 더 인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영혼들을 살리고 품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순교만큼 값진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드리고 신부의 배교는 설불리 자신의 삶을 위해 배교를 택했던 기치지로나 궤변과 자기 합리화나 배교를 택했던 페레이라 신부와는 확연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침묵'이라는 작품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의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에 서있었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구걸하는 배교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를 생각나게 한다. 그 당시 일본 천황에 참배한 사건을 통해 순교자와 배교자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다. 과연 그리스도인인 내 자신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서 있게 되었을까?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었을까,

않았나 싶다.

죽음이라는 핍박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순교자가 드러내는 용기라면, 배교는 죽음을 비켜가기 위해 비겁도 마다 않는 행동일 것이다. 일본이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이러한 순교와 배교의 두 기류가 역사 속에 깊이 묻혀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은 현재 기독교가 생존하면서 부흥을 맞볼 것인가 아니면 몰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하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될 것이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미국의 기독교 역사도 모두가 순수한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때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는 부흥이 아닌 타락과 몰락으로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순교의 자리에 섰느냐 아니면 배교의 자리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커다랗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p>응시자격</p> <p>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p>	<p>서류제출요령</p> <p>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1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5회 총회기간(5월 18일~21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 증서 수여함.</p>	<p>참고사항</p> <p>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송일용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1일~12일 총회시강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p>
<p>고시과목</p> <p>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p> <p>제출 고시 내용 (1) 구약주해 : 창22:1-19 (2) 신약주해 : 마5:1-12 (3) 논문제목 :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논하라 (4) 설교본문 : 막5:7-11 / 암8:11-14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기에 이메일 할 것. ① 래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p>	<p>고시일차 및 장소</p> <p>a) 일차: 2021년 5월 11(화) - 12(수) b) 장소: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서부: 대흥장로교회(Dae Hung Korean Church, 권영국 목사)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제출처</p> <p>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주 소 : 1641 W. 185th St. Gardena, CA 90248 전 화 : (818.282.0112) / 이메일 kapcpastor@gmail.com</p>
<p>응시서류</p> <p>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양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f) 명확한 사진 2장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p>	<p>기타문의</p> <p>a) 고시부 부장 : 김재호 목사 (Rev. Kim Jae Ho) ezrakim59@gmail.com (C) 646.270.5987 b) 고시부 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cpastor@gmail.com</p>	<p style="text-align: center;">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p> <p>총 회 장 : 조문희 목사 서 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p>